



산경도



산이 어찌 저 홀로

임영조

새삼 산을 보니 알겠다
소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쥐똥나무
밤나무 자작나무 때죽나무며
아직 이름 모르는 온갖 나무들이여
너희가 곧 산이었구나

인동덩굴 흰넝쿨 도라지 잔대
애기똥풀 쇄기풀 뚱딴지를 개망초
난생 처음 보는 풀꽃들이여
깃들인 다람쥐 맷새 벌레들이여
너희가 곧 주인이구나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한사코 무너지지 않게
저마다 한 자락씩 단단히 읊켜쥐고
사시장철 놓아주지 않는데
산이 어찌 저 홀로 산이겠느냐

바위는 바위대로 돌은 돌대로
만년세세 꺼질세라 자리를 보전하고
샘물도 낮은 데만 골라 흐르고
이끼도 쇠뜨기도 감싸고 도는데
산이 어찌 저 홀로 산이겠느냐

그래서 산은 군림하지 않는데
사람의 마을로 내려오지 않는데
이런! 송전탑 세우려고 별목한 자리
별겋게 드러난 기계총이 가려워
산은 자주 머리를 긁적거린다
비듬 같은 낙엽이 우수수 지는
산에 와서 보니 알겠다, 별레 같은!
아니, 별레만도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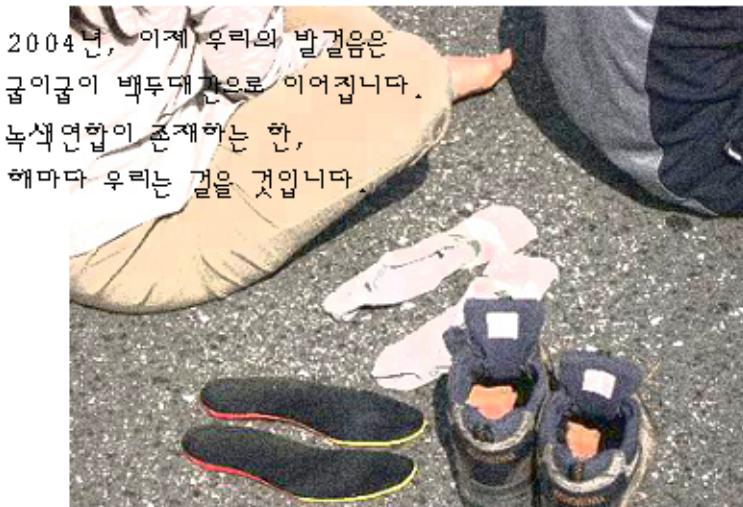
녹색순례의 의미

녹색순례는 . . .

녹색순례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자연과 온 몸으로 소통하기 위한 길 떠남입니다. 1998년부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녹색연합 활동가는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배낭을 메고 온 몸을 자연에 의지한 채 열흘 간 도보순례를 합니다. 녹색순례를 통해 활동가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 어디가 제일 아픈지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는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상처 난 곳을 치유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행동해 왔습니다. 활동가들이 발은 부르트고, 물집이 터지는 힘든 길이지만 녹색순례를 통해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집니다. 녹색순례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녹색순례는 98년 강화 갯벌에서 새만금 간척이 진행되고 있는 동진강, 만경강까지 도보순례를 시작으로, 99년 송전철탑이 건설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과 경상도 원전지역 곳곳에서 진행되었으며, 2000년에는 다시 땅 끝 해남에서 새만금 갯벌까지 간척사업 중단을 위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며 비무장지대(DMZ)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02년에는 빼앗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 땅 구석구석에 자리한 미군기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생명의 물줄기 천 삼백 리 낙동강을 따라 걸으며 강에 의지한 삶과 생명을 품은 강을 만났습니다.





사티쉬 쿠마르

- 땅 위를 걷는 사람

사티쉬 쿠마르(Satish Kumar)는 인도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마을의 한 점성가는 그의 인생은 끝없는 여행이 될 것이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예언은 맞았다. 아홉살 때 쿠마르는 모든 친지들과의 접촉을 끊고, 세속적인 관심을 멀리한 채 9년간 자이나교 승려로서 인도를 걸어서 횡단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세상과의 단절이 그의 영성을 더욱 깊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질식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종단을 떠났지만 걷기를 멈추지는 않았다. 그는 인도의 토지개혁운동에 참가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불가촉 천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줄 것을 부유한 지주들에게 요청하였다. 그의 걷기가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여러 해 뒤 그는 핵무기에 반대하기 위해 돈 한 푼 없이 인도에서 모스크바, 파리, 런던 그리고 위싱턴 D.C까지 걸어서 갔다.

중국인들이 어떻게 만리장성을 쌓았습니까? 벽돌 한 장을 놓고 그 위에 다시 한장을 놓았던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핵무기에 반대해서 평화행진을 하면서 인도에서 모스크바, 파리, 런던, 위싱턴 D.C까지 걸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걸음씩, 한걸음씩 걸었던 겁니다.

자이나교를 떠난 후 나는 비노바 바브와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간디와 함께 일했던 분으로, 간디의 정신적인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로 가장 빈곤한 계층, 즉 하리잔-불가촉천민-들을 향해 토지를 나누어주기 위한 토지개혁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 전역을 걸어서 다니면서 하리잔들과 지주들에게 땅도 곱기나 해, 물과 같이 신의 선물이며, 모든 사람들 -그는 '흙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은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위는 무척 작지만 가난한 자들의 위는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끈질기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노바 바브는 1955년에 토지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1985년까지 30년 동안 땅 없는 이들에게 땅을 찾아주려고 몬 인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땅 위를 걸어가면 나무, 강, 나비, 딱정벌레 같은 자연과 아주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나는 내 두 다리가 내 신체에서 가장 창조적인 부분이고, 걸기가 에너지의 가장 창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자연의 아름다움, 즉 생명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비폭력의 문화를 건설하는 데 비방(秘方)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린 작업입니다. 참을성이 아주 많아야 합니다. 자비심도 필요합니다. 참을성과 자비심은 비폭력의 두 가지 덕목입니다. 문화는 한사람, 한사람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하나의 운동, 하나의 큰 대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녹색평론 53호에 실린 사티ش 쿠마르와 데릭젠크슨의 대담 내용 중 쿠마르의 이야기만 발췌한 것입니다. 간디와 비노바 바브처럼 세상의 많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폭력과 걸기를 선택하셨던 더 많은 분들의 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걸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강화도에서 낙동강까지

『마치 지금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신문의 글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90세의 영국 철학자 베트란드 머셀이 해 반대 시위를 하다가 투옥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90세에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료 프라바카 메논과 의논하며, 해 강대국들의 수도인 모스크바, 파리, 런던, 워싱턴까지 평화행진을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란드 머셀에게 무리가 도무히 간다고 펜지를 썼습니다. 그는 “나는 매우 늙었으니 빨리 걸으라”라고 답장을 했더군요.』

- 사티ش 쿠마르의 인터뷰 중에서

아마 우리들 중 누군가도 쿠마르가 리셀의 기사를 읽듯이 그렇게 우연히 쿠마르의 평화를 위한 순례에 대해 읽었을 것이다. 그리곤 내내 우리가 진정한 운동을 위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우리가 몬전히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이다. 모두가 그 고민을 함께 할 무렵, 녹색순례라는 우리들의 새로운 순례가 계획되었을 것이다. 98년부터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은 녹색순례의 지난 기억을 떠올리면서 처음, 그 누군가의 시작으로 이 순례가 계획되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열흘간을 모든 활동 가가 서울을 떠나 계속 걸어야 하는 어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이 일이 계획되었을 때, 기억 속엔 누구 하나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거나 하지 않았다. 이미 모두의 마음속에 녹색순례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밟고 디디면서 몇 몸

으로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자체를 몬전 하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녹색순례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의 무언가를 던져 주었다.

1998 녹색순례는 강화도 남단의 아름다운 갯벌에서 시작해 서해안 갯벌을 따라 걸었다. 시화, 남양만, 아산만, 서산, 새만금에 이르는 길에서 다양한 얼굴을 만났다. 강물이 흘러 흘러 바다와 만나 드넓게 펼쳐져야 할 갯벌이 군사시설로 가로막히고, 폐수로 겹게 죽어 가고, 간척사업의 실패로 죽음의 호수가 되어 있었다. 또는 간척사업으로 놓지가 되었거나 방조제 공사가 한창이었다. 간척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여론화되고 있던 98년에 우리는 왜 갯벌이 갯벌로 있어야 하는지 마음 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갯벌이 갯벌의 얼굴로 있는 곳에서 생명체들의 평화로운 삶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함을 우리는 절실히 느꼈다.

1999 녹색순례는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무리하게 건설 중인 765kV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경기도 가평에서 강원도 태백까지, 그리고 울진의 핵발전소 예정지까지 걸었다. 두 번째 녹색순례에 참가한 이들에게 생긴 버릇 중 하나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 심심찮게 보이는 송전탑의 품량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따져본다는 것이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저 멀리 영광에서, 울진의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산을 깎고, 마을을 헤치고 만든 송전탑을 따라서 우리 집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먼 길을 따라 전기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환경오염을 주고 있는지... 송전탑 한 기를 세우기 위해 산을 깎고 그렇게 난 산길로 산사태가 나서 민가를 덮치는 일이 생겨도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하루하루 묵어가는 마을에서 만났다.

도시 삶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당연한 진실을 새삼 깨닫았다. 지붕 바로 위를 지나고 있는 고압의 총전선로 아래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하는 우리 이웃,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무어라 얘기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던 순하다 순한 어머니 아버지, 산꼭대기에 들어선 총전탑을 반대하기 위해 정선 물문대에선 팔십이 넘은 할머니와 함께 산에 올라 시위를 하고 핵발전소 반대를 위해 물진에선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00 녹색순례는 다시 갯벌로 걸음을 옮겼다. 2000년은 96년부터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이 조금씩 기운을 얻고 널리 알려지는 시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할 것 없이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무모함에 대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미 많은 간척사업이 진행된 서해안 북부와는 달리 남해안은 계획된 간척사업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그리고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에 불을 당기기 위해 우리는 다시 갯벌로 향했다. 이번에는 해남 땅 끝에서 새만금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다행히 남해안의 많은 갯벌에서 계획된 간척사업이 취소되고, 다시 원래의 평화로운 생태계로 돌아가고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는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우리는 또 다른 순례단을 만날 수 있었다. 군산에서부터 걸어 새만금에 도착한 「새만금간척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부안사람들」부안사람들의 순례단에는 다섯 살 푸름이도 있었다. 아빠와 함께 먼 길을 걸어온 푸름이는 아픈 다리보다는 갯벌을 따라 걸으면서 만난 망둥어의 우스운 몸동작이 더 기억에 남은 모양이었다. 갯벌을 지키고 자연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 아이에게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001 녹색순례는 해마다 얘기만 해오던 비무장지대로 떠났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 통제구역

(CCZ) 248km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녹색순례는 군부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며, 곳곳의 지뢰지대, 철조망 너머 보이는 북녘 땅,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분단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그러나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비무장지대 녹색순례를 통해 순례에 참여했던 모든 이의 가슴에는 비무장지대가 진정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을 수 있었다.

2002 녹색순례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서 억눌리고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아왔던 미군기지 주변에서 진행되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지난 시절 억눌려왔던 기지 주변 주민들과 주변 환경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곳에 희망과 생명의 씨앗을 심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준비하였던 것이다. 처음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그곳은 분명 기름진 논밭, 맑은 우물,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강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머리에 흰 수건 두른 아낙들이 안방 이야기 주고받으며 빨래를 하던, 그리고 밤낮을 모르며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던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기름진 논밭도 아니고, 삶의 성그러움이 넘실대는 곳도 아니다. 2002년 봄, 녹색순례 기간동안 우리가 지났던 그곳은 소음과 삭막함, 그리고 낯설음이 물어났다.

2003 녹색순례는 생명이 처음 시작된 물을 따라 걸었다. 1,300리로 남한에서 가장 긴 낙동강, 태백 황지연못을 시작해 부산 하구까지 거침없이 흐른다. 석탄산업으로 남아 있는 혼적들과 영풍아연제련소를 흐르며 고통받는 모습, 우포를 지나면서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모습으로, 부산 하구에 이르러서는 바다와 한 몸이 되며 낙동강은 맙없이 흐르고 있었다. 강에는 강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의식이 있다. 강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삶과 문화를 품고 있다. 한 줄기의 물이 죽으면 모든 물이 죽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줄기 물이 되살아 날 때 모든 줄기는 살아 날 것이다.

녹색순례를 통해 우리는 이 땅 어느 곳 하나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는 슬픈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또 자연이 아픈 곳을 디딜 때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아파오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살아 있는 곳에선 우리 역시 숨통이 트이고 다리에 힘이 불는다는 것도 알게 된다. 결국 우리와 자연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그래서 함께 아프고 함께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녹색순례를 통해 배워가고 있다.



얼마 전 사티쉬 쿠마르가 한국을 다녀갔다.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는 자연을 만날 수도, 느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끄거운 봄 햇살에 몬 팔과 얼굴을 시커멓게 태우고, 밟은 몬동 물집투성이가 되고, 몬종일 흙먼지를 마시면서 걸어야 하는 녹색순례를 어떤 이들은 고행이라 부르기도 한다. 자연에서 배우는 것은 자연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산을 오를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힘든 것은, 산에 대한 예의인 것이다.

우리는 매순간 하루에 몇십 칠로미터를 걷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다 해도, 우리는 틀림없이 이 고행이 끝날 무렵 다시 내년 순례를 이야기하며 기대에 부풀어 오를 것이다.

천리길 ⌂ ⌂ ⌂ ⌂

- ① 동산에 아침 햇살 구름 뚫고 솟아와
새하얀 청시꽃잎 위에 눈부시게 빛나고
별 아래는 구름바다 천-길을 뻗었나
산 아래 마을들아 밤새- 절들-쳤느냐
② 나뭇잎이 스쳐가네 물방울이 날으네
별 옥에 엉킨 칡넝쿨 우리 걸 길 막아-도
노루사슴 뛰어 간다 머리 위엔 종달새
수풀 저편 눈두렁에 야기영소가 노닌다
③ 쏟아지는 불-햇살 물아치는 흙먼지
이마에 맷한 염방울 눈-가에 쓰려도
우물가에 새-선-서 물-동-이 이고오네
호랑나비 날-으-고 아이들은 촐랑거린다
④ 먹구름이 물-겨운다 빛방울도 멎어진다
동 뒤에 흘러내린 물이 속옷까지 접혀도
소나기를 피하랴 천둥인들 무서우랴
겁쟁이 강아지는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가자 천리길 굽어굽어 쳐-가-자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영에 내가 간다
가자 천리길 굽어굽어 쳐-가-자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영에 내가 간다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의 산줄기

-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벚꽃 쪽에 꽃 죽 날리도록

녹색연합이 백두대간이라는 화두를 부여잡은 지 10년이 다 되어 간다. 언젠가부터 백두대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교과서에도 실리게 된 지금, 이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백두대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 중 큰 노력과 품을 들인 것은 녹색연합이다.

우리 국토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밝혀주는 등대이자 이정표가 바로 백두대간이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국토의 약 70%가 산인 우리의 지형적 특성으로 산을 친숙한 생활의 공간이자 자연 그 자체로 인식하면서 살아왔다.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뼈대를 백두대간이라 이름 지어 후세에게 전했다. 백두대간은 우리 자연과 땅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까지를 연결하는 유기체이다.

한반도를 상징하는 백두대간은 우리 겨레가 보듬고 부비며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민족의 비극이 서린 자리산까지 한줄기, 한 호흡으로 연결된 것이 백두대간이다. 장엄한 산줄기가 단 한번의 물길도 허락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웅장한 기상을 토해냈다. 백두대간은 땅의 서사시다. 태고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부여안고 이어져 온 실체가 백두대간인 것이다.

백두대간은 인간의 터전이라기보다 반달곰과 산양, 그리고 꼬리치레도룡뇽의 고향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해왔고 이제는 본래의 주인들이 마지막 안타까운 생존의 외마디 호소를 하고 있는 곳이 백두대간이다.

이번 우리의 순례는 오만하고 일방적이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본래의 주인들인 동식물에게 호소하려고 떠나는 길이다. 또, 그나마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도모해 왔던 백두대간의 원주민들, 즉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백두대간을 사랑하고 정을 나누어야 할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기 위해 나서는 발걸음이다. 백두대간은 산이요, 강이다. 분명 산이 연결되어 줄기를 이루는 것이 백두대간이다. 하지만 백두대간은 산만은 아니다. 모든 강물은 산 속 깊은 곳인 높은 샘을 출발하여 도도한 물줄기를 이루다가 드넓은 하구원에서 바다와 만난다. 하천의 수계와 유역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 백두대간이다. 우리는 산과 하천이 만나서 형성된 백두대간을 직접 확인하려고 순례의 길을 나선다.

백두대간에는 고개 길 하나에도 많은 사연이 담겨 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가 산줄기를 넘나드는 고개고개 마다 무수히 새겨져 있다. 보부상과 화전민, 심마니가 다녔던 모든 고개, 민중들의 애환이 서린 길이 백두대간의 고개이다.

이제 우리는 그 현장을 두발로 걸어가면서 두 눈과 한 가슴으로 느끼려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토의 곳곳을 순례로 내달렸다. 세계 5대 습지인 서해안의 갯벌과 새만금을 비롯하여 송전탑으로 신음하는 강원도 산림을 넘어 비무장지대와 미군기지 현장 그리고 생명의 물줄기 낙동강까지 사랑과 희망, 분노와 슬픔을 팜방을로 격시며 이어갔다. 가장 아름다웠던 국토의 속살부터 가장 처절한 파괴당한 국토의 상처까지 두 발걸음으로 내달았다. 이제 우리는 그 백두대간이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을 보려고 길을 나선다.

백두에서 지리까지 하나인 것처럼 백두대간은 연결되어 있다. 남과 북이 하나로 만나는 것처럼 백두대간을 온전히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작은 걸음으로 백두대간 녹색순례를 시작한다. 온갖 생명들이 어떤 단절이나 갈라짐 없이 오가며 공존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통일대간의 그날의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봄날의 어머니 조국, 백두대간을 밟으려 한다.

말말말 - 백두대간, 백두대간, 백두대간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비롯된 큰 산줄기’라는 뜻이며,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물줄기에 의해 한번도 잘리지 않고 연속되어 국토의 등뼈를 이루고 있는 산줄기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다.

백두대간은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중 신경준이 집필한 「여지고」의 「산천」을 보고 1800년경에 누군가 만든 『산경표』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나,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이 땅에서 사라졌던 우리의 전통적 자리 인식체계이다.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가능케 했던 우리 고유의 자리 인식체계이다.

백두대간의 존재는 1913년 조선광문회가 발간한 『산경표』가 1980년 「대동여지도」를 연구하던 이우형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산경표』는 우리나라의 산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흐르다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족보 형식으로 도표화(圖表化)한 책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1대간·1정간·13정맥으로 분류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국토를 남북으로 내달는 대동맥이며, 동해로 흐르는 물과 서해로 흐르는 물을 갈라놓는 대분수령이며, 14개 정간·정맥의 모태이며, 모든 강의 발원지이며, 한반도 산지 분류체계의 상징이며, 한민족의 인문·사회·문화·역사의 기반이며,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대표 산줄기이다.

백두대간은 선(線)이 아니라 연속된 산지체계이며, 곧 국토 전체이다.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은 '종주 산행의 노선' 또는 '분수계(分水界)'라는 '가장 좁은 의미의 백두대간'에 머물러 서는 아니 된다.

'좁은 의미의 백두대간'은 '중심 산줄기'를 뜻하며, '넓은 의미의 백두대간'은 '중심 산줄기와 그 부속 산지'를 뜻하며, '가장 넓은 의미의 백두대간'은 '전통적 국토지리 인식체계'로서 '국토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야만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국토의 단일성과 일체성에 대한 인식을 되살릴 수 있고,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백두산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간 여러 개의 산 줄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대의 영토 개념에 대한 재조명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백두대간의 지리적 특성, 식생 현황, 생물학적 특성, 또는 그 훼손 정도를 파악하거나, 복원·보호·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그 능선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넓고 높은 공간적 규모(입체)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공간적 실체를 먼저 인식 함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백두대간은 합당하고도 온당한 지리적 범위를 점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거대한 자연환경의 장(場)이며, 생태의 장이며, 스스로 살아있는 자연이다.

순례에 들어가며...

2004 녹색순례, 다시 길에 들다!

다시 길을 나섭니다. 어느새 일곱 번째 걸음... .

해마다 준비하는 배낭이지만 늘 출발을 앞두면 설레임과 고단함을 먼저 느낍니다. 돌아보니 그동안 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98년부터 해마다 300킬로미터 넘는 길을 참으로 길게 걸었습니다. 그간 걸어온 거리를 되돌아보려다 그만둡니다. 이미 걸어온 길보다는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은 길에서 시작해 길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을 생명운동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운동도 항상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책상 앞에서, 머리로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현장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그 현장의 운동입니다. 항상 길 위에 있는 운동입니다. 책꽂이와 머리에 자리 잡게 될 때 이미 그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항상 우리는 현장을 꿈꾸고 아름다움을 꿈꾸고 자연을 꿈꾸어 왔습니다. 이제 백두대간을 꿈꿉니다. 먼지가 뽀얀 길가의 민들레 한 송이와 암벽에 우뚝 솟은 소나무 한 그루, 저 창공을 가르는 한 마리 새, 그리고 감자를 심는 농부와 공존을 꿈꿉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합니다. 왜 꿈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냐고… . 운동은 꿈이라 생각합니다. 꿈은 운동의 목적이 되어 주고, 힘이 됩니다. 꿈꾸지 않는 것은 진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걸으며, 꿈을 꾸고자 합니다. 진정 백두대간과 대간의 품에 깃든 뜻 생명들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꿈꾸며, 또다시 새로운 길을 준비합니다.

- 2004 녹색순례 대장 반달 남호근

● 일정별 서부 구간 및 숙소

.. 제1일차(5월 12일, 수) 8.5km

태백산 유일사 매표소 → 태백산 천제단 → 당골 야영장

◎숙소 : 태백산 당골 민박집

.. 제2일차(5월 13일, 목) 37km

당골야영장 → 태백시내 → 피재 → 숙뎅이양지 → 번천분교

◎숙소 : 번천분교

.. 제3일차(5월 14일, 금) 34km

번천분교 → 댓재 → 쌍용채석장 → 달방댐 → 삼흘리 민박

◎숙소 : 삼흘리 과수원 민박

.. 제4일차(5월 15일, 토) 17km

삼흘리 → 남면치 → 백봉령 → 자병산 → 부수베리 계곡

◎숙소 : 부수베리 계곡 농막

.. 제5일차(5월 16일, 일) 32km

부수베리 계곡 → 백봉령 → 화성교 → 삽당령 → 대기분교

◎숙소 : 대기리 대기분교

.. 제6일차(5월 17일, 월) 34km

대기분교 → 피동령 → 도암댐 → 월정삼거리 → 오대산 입구

◎숙소 : 오대산 민박촌

.. 제7일차(5월 18일, 화) 40km

오대산 입구 → 월정사 → 상원사 → 외청도리 → 삼봉자연휴양림

◎숙소 : 삼봉자연휴양림

.. 제8일차(5월 19일, 수) 32km

삼봉자연휴양림 → 월둔재 → 아침가리골 → 조경동 → 방동리

◎숙소 : 방동리 약수터 민박

.. 제9일차(5월 20일, 목) 28km

방동리 → 방태천 계곡 → 쇠나드리 → 조침령 → 미천골자연휴양림

◎숙소 : 미천골자연휴양림

.. 제10일차(5월 21일, 금)

미천골자연휴양림 → 서울

● 녹색순례 진행방법

■ 순례 원칙

- ▶ **순례는 걷기가 기본이다.** 녹색순례는 차량이동을 가장 적게 하기로 약속하고, 볼 수 있으면 모든 곳을 걸어간다.
- ▶ **하루 8시간 이상 걷는다.** 무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를 두 다리로 걸으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파괴로 상처 입은 것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있는 환경운동을 준비한다.
- ▶ **녹색순례는 자연과 하나 되는 데서 시작된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도시의 생활을 버리고 소박한 생활을 한다.
- ▶ **녹색순례는 함께 하는 순례이다.** 항상 마음에 나보다 옆의 친구를 먼저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한다. 진정한 순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듦과 동지의 힘듦을 함께 하여야 한다.

■ 도보 및 생활 지침

- 녹색순례의 주제와 의미를 충분히 안다.
- 녹색순례에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잘 한다.
-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은 잘 지킨다.
- 밥 먹기 전 체조나 명상에 빠지지 않는다.
- 항상 순례일정표를 잘 알아 출발 및 도착시간을 지킨다.
- 순례 때 개인행동은 줄인다.(조별 행동을 원칙으로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 조장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조장은 이를 대장에게 이야기한다)
- 폭이 좁은 도로를 걸을 때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한다.
- 갑작스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순례 진행자의 말에 따른다.
- 순례 대열에서 뒤쳐지지 않는다.
- 밥은 모둠별로 재빨리 하여 늦지 않게 한다.

▣ 식사 지침

- 순례인원에 알맞은 식단을 준비한다.
- 밥 먹기에 앞서 자연에 고마운 기도를 올리고 먹는다.
- 개인 그릇은 개인이 설거지 한다.
-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식사로 인하여 출발에 늦어지지 않게 한다.
- 밥할 때 불조심을 한다.

▣ 모둠장 지침

- 순례 기간 내 조를 한다.
- 순례 때 모둠원의 안전에 신경 쓴다.
- 모둠별로 이동할 때 모둠원을 잘 확인한다.
- 물품 신청 및 수령을 담당한다.
- 모둠장회의에 참여하고 모둠별 토론을 잘 이끌어 낸다.
- 순례 때 모둠원의 상태를 잘 살핀다.

▣ 지원 지침

- 순례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단체들과의 연대를 돈독히 한다.
- 행사준비물 및 식사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한다.
- 녹색순례의 의미를 알릴 수 있도록 보도지침을 마련한다.
- 외부 순례자와의 연계방안을 마련, 일정참가에 혼란이 없게 한다.

▣ 차량 운행 원칙

- 순례 자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효율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순례 전 구간에 대해 숙지한다.
- 차량정비를 철저히 한다.
-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빨리 대처한다.
- 모든 상황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 녹색준비물

● 개인준비물

배낭 : 대 - 모든 개인 비품을 담는 용도

소 - 걸을 때 도시락, 모자, 물통 등을 담아 다니는 것

침낭 : 일교차가 큰 지역이므로 가을, 겨울용 침낭

매트리스 : 난방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

등산화 : 순례코스가 국도와 대부분의 임도(임업도로), 적당한 산지이므로 등산화나 편한 운동화가 필요. 새 등산화는 신어서 적응된 상태여야 함.

도시락통 : 점심식사를 위해 밥과 반찬을 담아서 다니는 용도

개인물통 : 지원팀의 물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꼭 개인물통을 지참

모버자켓 : 방풍, 방수가 가능한 긴팔 점퍼

신분증, 의료보험증

그 밖의 것들

슬리퍼, 우의, 활동복, 세면도구, 여벌의 옷가지, 모자, 손전등,

수저, 개인컵, 손수건, 필기도구, 양말, 세면도구, 기타 물품 등

● 조별준비물

코펠 2종, 버너 3종, 수세미, 국자, 주걱, 칼 등 취사 관련도구,

밑반찬, 재봉구(실, 바늘), 렌턴 등

● 전체준비물

차량(포장트럭 1대), 플랭카드, 순례깃발, 녹색연합 깃발, 구급약

품, 문구류, 지도, 파워선, 슬라이드기, 무전기, 버너연료 등

순례 진행팀!

순례대장	남호근	순례부대장	정기영
순례기획	조희은, 이윤미, 김형우	순례기획 지원	정용미, 배제선

한솥밥 먹는 우리 모임!

1조	2조	3조	4조	5조
김재남	김혁이	서지철	윤기돈	남호근
정연경	정용미	조희은	이윤미	윤상훈
정기영	박경화	구대수	김미영	함은혁
오재숙	김형우	박은경	박양규	김윤희
이신애	유달리	김정훈	고지선	송주현
박경수	황돈영	손승우	박진영	신영철
이재현 임선희(12-16)	한상민 김설대	이지영	조명리	이지인(12-16)
노수진(12-16) 윤지선(16-21)	정은실(12-16) 김경화(16-21)	김세숙(12-16) 박정윤(16-21)	김기돈(12-16) 최봉철(16-21)	이호준(12-16) 정호(16-21)
박은애(12-16) 배제선(16-21)	최설험(12-16)	이유진(12-16) 유종반(16-21)	김선희(12-16) 김태규(16-21)	정은영(12-16) 최영진(16-21)
백두대간파 문화	백두대간파 경제	백두대간파 도로	백두대간파 군사	백두대간파 답

하늘 아래 처음 빛으로 열린 땅, 태백에서
첫째 날 20040512

백두대간의 고장, 강원도

강원도는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백두대간은 강원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권역이다. 강원도 자연 생태계의 핵심보고이자 지리와 문화의 분수령이다. 강원지역의 생태계를 논함에 있어 백두대간은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두대간은 강원도 전체를 관통한다. 강원도의 최남단인 영월군부터 최북단 안에 고성군까지 5개의 시(市-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와 7개 군(郡-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에 걸쳐 산줄기가 흐르고 있다. 강원지역의 백두대간은 평균 해발고도가 약 천 미터 대를 유지하는 남한지역 산림의 중심권역이라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 지역들이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임상도나 환경부의 녹지자연도를 보면 강원지역의 백두대간은 거의 대부분이 8등급이나 그 이상의 지역이다. 녹지자연도에는 강원지역의 대부분이 절대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나타나 있다.

강원도의 백두대간이 아우르는 주요한 산들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태백산 권역이다. 이곳은 태백산과 함께 구룡산과 북쪽의 함백산, 금대봉, 매봉산까지 포함된다. 태백산은 도립공원이며 금대봉은 환경부 고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이다. 두 번째로는 청옥·두타산 권역인데 이곳은 무릉계곡 등 국민휴양지로 관광객이 많다. 이곳은 전형적인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석회광산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석병산, 대화실산, 고루포기산, 그리고 오대산 권역이다. 오대산은 국립공원으로서 지리산과 견줄만한 전형적인 육산형의 산악지역이다.

다음으로는 점봉산 권역이다. 구룡령부터 갈전곡봉 넘어 점봉산 까지는 남한 최고의 원시림을 자랑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여섯 번째로는 설악산 권역이다. 설악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 이자 국립공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선봉, 마산봉, 향로봉으로 이어진다.

희귀 고산식물 출추는 산성화원 태백산

태백산은 최근 북방계 희귀식물들의 대규모 자생지가 잇따라 확인됨으로써 태백산은 이제까지 설악산이나 오대산으로 알려졌던 고산식물의 남방한계지로 생태학적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

90년 자생식물연구회 조사단은 모데미풀·한계령풀·노랑무늬붓꽃·큰제비고깔·만주바람꽃 등 희귀·특산 식물의 대규모 떼판군락과 북방계 고산식물인 날개하늘나리·기생꽃·노랑만병초·병풍쌈·개병풀 등의 자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태백산에는 특히 흰진달래·흰얼레지·흰밀월비비추·흰소영도리나무·흰큰앵초·흰알며느리밥풀·흰넓은잎갈퀴 등 원래 색깔과는 달리 흰색으로 피는 꽃들이 많아 ‘백의민족의 성산’임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구경꾼의 발길 아래 쓰러지는 ‘절대보호식물’들도 많다. 환경부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해 절대 훼손을 막고 있는 희귀식물인 노랑무늬붓꽃의 터전은 철쭉제 때마다 전국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등산객들의 발길로 하루하루 좁아지고 있다. 또 정상 부근에서 자라고 있는 3천여 그루의 주목도 관찰 국유림관리소에서 나무마다 고유번호까지 붙여 놓았으나 대부분 가지가 꺾이거나 속이 썩은 채 죽어가고 있고 그나마 특유의 붉은 줄기가 살아 있는 나무들은 등산객들의 기념 촬영무대로 시달림을 겪고 있다. 희귀식물인 큰제비고깔의 군락도 1~2년새 크게 줄어 찾아보기 어렵고 옥잠난초·큰제비난·흰제비난 같은 난과식물도 수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태백산에는 이 밖에도 가시없는 두릅나무·땃두릅나무·가시오갈피·털댕강나무·당마가목 같은 희귀수목들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으나, 악재나 공예용등으로 공공연히 채취되고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결이면 단군제를 올리는 민족의 영산』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庶者) 환웅(桓雄)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 보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름에 할 만하였다.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이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의 산꼭대기에 있는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와 이를 신시(神市)라 일렀다. 풍백(鳳伯), 무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혈병, 선악 등을 주관하면서, 인간의 삼백에순 가지나 되는 일을 맡아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시켰다.”(삼국유사 권1)

태백산정에는 역사가 2,000년이 넘었다는 천제단(天祭壇)이 있다. <환단고기(桓檀古記)>에 보면 ‘5세 단군 구을(庚乙) 임술 원년에 태백산에 천제단을 축조하라 명하고 사자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외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에도 국가적 제를 지낸 곳임을 전하고 있다.

조선 성종 대의 학자 성현의 <허백당집>에 보면 ‘삼도(三道: 강원, 경상, 충청도)의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천왕당을 짓어 단군의 상을 모셔놓고 제사하는데, 절 따라 천제를 모시고자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깨가 서로 부딪치고, 앞서 가는 사람의 발뒤꿈치를 밟을 정도’라고 당시 천제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450여 년 전의 모습은 최근 들어 매년 다시 재현되고 있다. 태백문화원이 매년 10월3일 개천절에 천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 천제 때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다.

태백산은 신령의 산이자 무속의 텃밭임을 태백시 향토사학자인 김강산 씨는 이렇게 말했다.

“큰 산에는 대개 유명 사찰이 있게 마련인데, 유독 태백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망경사나 유일사도 모두 20~30년 전에 세운 것들이죠. 이것 또 한 태백산만의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데, 수천 년 전부터 단군, 천신, 산신 등 고유 신앙의 본거지였기에 외래 종교가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천제단의 모습>

백두대간을 미군 폭격장으로 내줄 수 없다.

강원도 태백산(1568m)은 백두대간의 허리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의 뒷산들조차 어디서 뺀어웠는지 좋아가면 모두 태백산에서 만나게 된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도 바로 태백산 자락이다. 그래서 태백산은 지리적으로 남한의 산과 강의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태백산은 국립공원이 아닌 도립공원이다.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계룡산도 국립공원이지만 태백산만 도립공원 신세다. 왜냐하면 미군과 한국공군이 1981년부터 태백산 면적의 반 이상인 1,800만평을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이다.

태백산 일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설악산, 지리산 등 여타 국립공원 지역에 버금간다. 하지만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계획이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의 교차점으로서의 태백산의 생태적 가치는 남다르다. 등대시호, 노랑무늬롯꽃, 금강제비꽃 등 희귀종과 주목, 분비나무, 거제수 등 자작나무과 군락 같은 식물생태계의 종 다양성은 다른 국립공원지역과 어깨를 겨룰 정도다. 요즘은 폭격훈련장의 소음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동물 생태계도 풍부했던 것이다. 태백산 일대는 그 어느 산보다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호식종'이라 불리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태백산 곳곳에 흩어져 있다.

백두대간 구룡산(1345.4m)과 태백산 일대에서는 항상 비행기 소음과 폭발음을 들을 수 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태백산 정상을 선회한다. 훈련장 안에는 1981년 이전부터 영월군 상동읍 주민들의 상수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 널려진 채 관리되지 않는 포탄들로 인해서 토양과 계곡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이 계곡은 폭동천으로 흘러들어 다른 지류들과 합해져서 한강을 이루게 된다.

지난 4월에 경기도 화성의 매항리 미공군폭격장 완전폐쇄가 발표되면서 대체 훈련장으로 태백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보다 몇 배 증가된 훈련으로 인해서 환경적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산 정상 천제단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는 공군 폭격장은 국가의 안보논리,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서 훼손되는 백두대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까닭이 있는 공간

자네들 인디언 타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그건, 내가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때, 타는 뜻이란
노인은 인디언 타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반면에 나는 아직도 세계와 금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상처난 무릅, 운디트니 중

첫째날 2004. 5. 12 {수}

순 례 팀 일 정	06	06
	07	07
	08 서출 출발	08 서출 출발
	09	09
	10	10
	11	11
	12 식사	12 식사
	13 태백산 유일사 매표소 도착	13 태백산 유일사 매표소 도착
	14 순례	14 지원활동
	15	15
	16	16
	17	17 숙소도착
	18 숙소도착, 세면	18 조별 물품 지원
	19 식사	19 식사
	20 지역주민과의 대화	20 지역주민과의 대화
	21 조별모임	21 조별모임
	22 취침	22 취침
	23	23
	24	24
이동구간	서초구민회관 → 백두대간 화방지 → 디백산 유일사 매표소 → 디 백산 천제단 → 디백산 당골 애영장 / 도보(8.5km) 4시간 소요	
	백두대간의 절반가량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포함되는데, 그 시작이 강원도 영월과 태백이다. 그 시작과 중심에 태백산이 있다. 태백산은 단군신화에도 나오는 민족의 영산으로 중요한 자리서에도 그 의미가 날다르게 언급되어있다. 매년 10월 3일 개천일이면 태백산 정상의 천제단에서는 단군의 의미를 기리는 천제가 성대히 열린다.	
지역소개	태백산은 생태계도 날다른데,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과 버금 가는 고산 학귀식물의 보고다. 하지만 태백산 정상을 중심으로 영월군 일대 전체가 한미 합동 공군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그 어떤 국립공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자연생태와 문화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태백산이 공군 폭격훈련장 때문에 아직도 도립공원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일대는 태백산 필승사격장의 계속된 폭격훈련으로 인해서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부대 안에는 영월주민들의 상수원이 자리 잡다.	
행사내용	태백산 폭격장 관련 주민연대 집회 및 주민과의 대화	
숙소	태백산 당골 민박촌	
비고		

멈춰라! 개발바람

둘째 날 20040513

희귀 양서·파충류의 마지막 피난처

금대봉-대덕산 일대는 환경부가 정한 자연생태계보호구역으로 희귀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를 봉우리 사이의 계곡에는 한 강의 발원지인 검용소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검용소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에 있는 소(沼)이다. 둘레 약 20m이고, 깊이는 알 수 없으며 사계절 9°C의 지하수가 하루 2,000~3,000t씩 석회암반을 뚫고 솟아 폭포를 이루며 쏟아진다. 오랜 세월 동안 흐른 물줄기 때문에 깊이 1~1.5m, 넓이 1~2m의 암반이 구불구불하게 패여 있다. 소의 이름은 물이 솟아 나오는 굴 속에 검룡이 살고 있다 해서 붙여졌다.

이 곳의 깊은 계곡과 헛별 잘 드는 돌무더기 초원에서 곧잘 눈에 띄던 꼬리치레도룡뇽과 한국산 도마뱀은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에 걸쳐있는 금대봉(1,418m) 일대의 계곡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몰려 살고 있는 우리나라 양서파충류의 마지막 피난처인 셈이다. 금대봉 일대는 양서파충류 말고도 대성큰풀, 한계령풀, 가시오갈피 등 16종의 희귀식물과 하늘다람쥐, 검독수리 등 9종의 희귀동물이 서식하는 중부지역 산림생태계의 보고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환경부는 1993년 4월 이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관광개발 손길 아래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져 있어, 이곳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아는 학자와 주민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태백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이면 뒷을 수 있는 싸리재(해발 1,172m)는 금대봉 일대 생태계를 파괴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해마다 봄이 되면 싸리재 꼭대기 버스정류장에는 커다란 나물자루나 빈 배낭을 멘 산나물 채취꾼들이 꼬리를 문다. 이들은 산나물뿐 아니라 각종 약용식물과 희귀식물을 덕치는 대로 쓸어간다.

실제로 출창한 숲 속에는 신경통약에 쓴다고 껍질을 벗겨가 말라죽은 수십 년생 마가목들과 바둑판을 만들기 위해 토막 낸 아름드리 피나무의 잔해 등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폐광의 깊은 그림자 태백·정선에 걸게 드리우고

강원도 태백·삼척·정선·영월 지역은 국가 에너지원의 중심이 석탄이던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석탄산업에 힘입어 '개마저도 만 원짜리 지폐가 아니면 물고 다니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 경기가 좋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주 에너지가 석탄에서 석유로 대체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합리화 조치가 추진되면서 석탄산업은 본격적인 사양화에 길로 접어들었다. 폐광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었고, 급속한 인구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탄광촌이 폐광촌이 되면서 4개 시·군 인구는 1988년 441천명에서 282천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히, 탄광지역은 1989년부터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이 불교현상을 보인다. 폐광과 인구감소는 경기침체로 이어졌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폐광지역주민들은 경기침체와 대체산업의 부재로 극심한 정서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린다.

1993년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태백주민들이 대규모 결기대회를 열었다. 1만여 명의 폐광지역주민이 모여 결기대회를 하고 서울로 500여명이 상경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죽어가는 폐광지역'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후 태백시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실망하고, 지역회생을 위한 태백시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백병산에 스키장 개발에 착수한다. 관광개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환경법과 산림법 같은 법과 제도의 제약으로 스키장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난다. 태백주민들은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하려는 것만을 막는 것에 분노한다. 탄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탄광지역에 한해서만 일정기간 동안 각종 규제를 풀고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후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특별법 제정운동은 태백에서 정선의 고한, 사북으로 확산되어 처절한 대규모 투쟁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정부가 지역주민들과 5개항의 합의를 하는데 그 가운데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제정 약속이 포함된다. 결국 1995년 11월

30일 국회에서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통과되었다.

- 탄광촌 사람들의 겪은 짜방을과 눈물 그리고 폐광지역특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광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 제정 공포되었고, 이후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폐광지역 개발계획의 기본목표는 해안가 고원이 연계된 국제 규모의 종합적인 관광레저 휴양지로 개발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탄광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도시생활 환경이 조성과 정주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관광레저 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후 태백시를 비롯한 영월군, 삼척시, 도계읍, 정선군 등의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1996년 8월 12일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

현재 폐광지역특별법에 의거 시행되는 첫 번째 사업이 강원도 정선군 사북·고한읍 일대에 건설 중인 강원카지노리조트(종합 휴양지로 카지노, 숙박시설, 테마파크, 스키장, 골프장 포함 전체 면적 11,570천 m²)이다. 강원카지노리조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카지노이며 이와 함께 18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과 백운산일대에 슬로프 22면의 대규모 스키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MF를 거치면서 레저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개발 시도는 잠시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개발의 중심적 테마가 되고 있다.

그러나 탄광지역 개발촉진 변경개발계획은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법)에 의거 생태자연도 1 등급 개발의 특례,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산림법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산림생태계가 우수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 해도 폐광법에 의거 스키장, 골프장 등의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특례적용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가 아닌 강원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어 형식적이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에서는 2002년 7월부터 강원카지노리조트 건설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알려냈었다. 그러나 녹색연합 발표 이후 폐광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녹색연합의 발표로 강원랜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 폐광지역주민협의회 홈페이지는 ‘녹색연합 주장에 대해 분노한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성명서가 게재되었다. 또한 지자체는 연일 반박성명을 내어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폐촉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백두대간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큼이나 백두대간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생계와 복지는 중요하다. 폐광지역특별법 자체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고려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백두대간은 백두대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인간과 자연이 올살스럽게 공존하는 백두대간이 우리가 꿈꾸는 백두대간이다. 여기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모델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백두대간과 인간의 공존은 백두대간의 훼손과 오염에 대해 가장 먼저 알고, 백두대간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제2의 강원랜드를 막아내는 가장 큰 힘이다.

이상향(理想鄉)으로 가는 길목 삼수령

높이 920m로,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분기점이며 삼강(三江:한강·낙동강·오십천)의 발원지이다. 이곳에 떨어지는 빗물이 북쪽으로 흘러 한강을 따라 황해로, 동쪽으로 흘러 오십천을 따라 동해로, 남쪽으로 흘러 낙동강을 따라 남해로 흐르는 분수령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하나의 이름이 전하는데, 삼척 지방 백성들이 난리를 피해 이상향(理想鄉)으로 알려진 황지로 가기 위해 이곳을 넘었기 때문에 ‘피해 오는 고개’라는 뜻으로 피재라고도 한다.



미지의 세계 낙동정맥

백두산에서 남으로 뻗어내려 지리산까지 내려가는 백두대간이 피재에 이르러 양분되면서 대간은 서쪽으로 꺾어지며 할백산(1573m)으로 맥을 잇고, 또 한 가닥은 동남쪽으로 갈라져 나가면서 백병산(1259m)으로 맥을 이어나가는데 바로 이 줄기가 동해와 나란히 달려 다대포 봄운대 낙동강 하구까지 뻗어 나가며 낙동정맥을 일구게 된다.

낙동정맥은 국내 제일의 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의 활지연못과 한 몸이 되어 남쪽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산줄기다. 낙동강의 수계를 형성하는 유역권 전체가 낙동강 물줄기를 중심으로 한쪽은 백두대간이고 한쪽은 낙동정맥이 된다.

낙동정맥은 경상도 전체를 가로 지르는 거대한 산줄기로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나 연구된 바 없는 산줄기로 우리의 인식에서도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자연의 보고다. 지도상의 능선 거리만도 약 410km이고, 고도와 기복을 감안한 실제거리는 약 700km가 넘는다.

둘째날 2004. 5. 13 (목)

순 례 팀 일 정	06	기상	06	기상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8	순례	08	지원활동
	09		09	
	10		10	
	11		11	
	12	식사	12	
	13	순례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숙소도착
	19	숙소도착, 세면, 식사	19	조별 물품 지원
	20	조별시간	20	조별시간
	21	평가	21	평가
	22	취침	22	취침
	23		23	
	24		24	

이동구간 대백산 당골야영장 → 대백시니 → 피제(삼수령) → 숙영이양지 → 번천분교 / 도보(37km) / 10시간 소요

태백산-함백산-금대봉-대덕산은 한강의 발원지 겉용소가 위치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야생화와 양서파충류 서식지이자 희귀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주 에너지가 석탄에서 석유로 대체되면서 석탄산업은 본격적인 사양화에 길로 접어들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길을 찾아 이곳을 떠나갔다. 폐광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었고, 급속한 인구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태백/삼척/정선/영월의 주민들은 경기침체와 대체산업의 부재로 극심한 정서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려왔다.

1995~2005년 까지 추진되는 폐광지역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태백산 일대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태백, 영월지역 일대는 관광레저산업 및 지역특화사업 구역이 밀집되어 있어, 백두대간의 생태적 역할과 기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 주변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계획은 가히 위협적이다.

행사내용 백두대간 슬라이드 상영

숙소 번천분교

비고

수 만년 세월이 빚어낸 독특한
석회암 지형과 생태계를 간직한 삼척
셋째 날 20040514

신선이 노닐던 무릉도원 파헤치는 쌍용

신선이 노닐었다는 무릉계곡은 두타산과 청록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계곡으로 무릉반석, 학소대, 관음폭포, 용추폭포, 쌍폭포, 장군바위 등 수많은 기암괴석과 절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마치 현존하는 선경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태고의 신비와 전설 속에 무릉계곡은 이 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명소이다.

일명 무릉도원이라도 불리는 이곳은 고려시대에 동안거사 이승휴가 천은사의 전신인 용안당에 머물며 <제왕문기>를 저술하였고, 조선 선조 때에 삼척부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효원이 제명 하였다고 한다. 기암괴석이 풍부하게 절경을 이루고 있어, 마치 선경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무릉계는 수많은 관광객을 도취시키며, 많은 전설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명승지로, 1977년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되었다. 계곡 안에 들어서면 어느새 바깥세상 소리는 사라지고, 바위를 적시는 물소리만 맑고 힐찬 선경(선경)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다본 무릉계곡은 계곡 양쪽 산자락을 포위하듯 파고들어오는 대규모 노천 석회석 광산 때문에 위태롭기 짹이 없었다. 국내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인 쌍용양회는 무릉계곡 부근 등 동해시 일대에서만 총 355만7000m³(107만6000평) 규모의 노천광산을 개발하고, 연간 790만8000t의 석회석을 파내고 있다. 인근 광산까지 더하면 총 개발면적 556만m³(168만5000평)에 연간 생산량은 1500만t를 출쩍 뛰어넘는다. 광산에 둘러싸인 비경은 어색하기만 하고 그 수명 또한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현행 산림법은 광산개발이 끝난 곳은 폐석 위에 30-40cm 이상 복토(복토)하고, 그 위에 나무를 심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양회는 수십 년 동안 석회석을 파내고 328ha를 파헤쳐 놓았을 뿐이다.

백두대간을 좀 먹는 고랭지채소밭

1980년대 초부터 고랭지채소 재배 붐이 일어나면서 백두대간의 산림을 대규모로 벌채하는 고랭지농경단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랭지채소밭 경작의 증가는 백두대간의 산림을 대규모로 벌채하면서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랭지농경단지는 재배기간을 뺀 10달가량이 나지로 방치돼 비라도 오면 토사가 그대로 하천으로 쟁겨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 고랭지채소밭의 경작은 상류 중에 최상류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의 하천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대규모 고랭지농경단지가 3개소나 있다. 강원도의 대규모 고랭지농경단지는 백두대간 매봉산, 덕항산, 고루포기산 일대의 산 사면과 골짜기 전체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를 고랭지채소밭은 모두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산림을 벌채하고 무나 배추 등의 채소를 재배한다. 그러나 산림을 모두 벌채한 고랭지농경단지는 봄철 해빙기나 여름철 폭우 시에 토양의 침식과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고랭지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서 산 정상부를 개간하고 있는데, 산 정상부의 경우 토심이 얕고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해한다. 뿐만 아니라 배추나 무 등의 동일한 작물을 대규모로 경작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취약해서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백두대간의 대규모 고랭지채소밭은 비료나 농약 등으로 오염된 토양의 지속적인 침식과 유실을 발생시켜 백두대간 주변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그동안 사용되어 온 많은 농약과 비료로 인해 토양이 매우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석회질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인 마루금 주변의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백두대간에 더 이상의 대규모 고랭지재배단지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의 일정구간에서는 대규모 산림훼손을 발생시키는 고랭지채소밭의 개간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 또한 이미 조성되어있는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의 고랭지농경단지의 경우 경작을 금지시키고 자연식생을 통한 복원을 시행해야한다. 특히 이들 지역이 급경사산지에 대규모 나자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산사태나 토양유실들의 환경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들 훼손지를 안정시키는 안정공사를 시행한 후 생태복원 추진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백두대간 마루금에서 좌우 5km정도의 구간에서는 산림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산림벌채를 통한 경작지 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에 조성된 고랭지 채소경작지는 동서방향으로 1km까지, 국·공유지인 경우 5년 후부터 경작을 금지하고 자연식생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사유지인 경우 가급적 10년 이내에 국가차원에서 매입을 통해 훼손지의 복원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까닭이 있는 공간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아기 까마귀의 것도 되고
마挑衅의 것도 되고 한 마리 메뚜기의 것도 된다.
발 한 뼈가 둘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두의 것이다.

- 권경생 님의 글에서

셋 째날 2004. 5. 14(금)

순 례 팀 일 정	06	기상	지 월 팀 일 정	06	기상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8	준례		08	지원활동
	09			09	
	10			10	
	11			11	
	12	식사		12	
	13	준례		13	
	14			14	
	15			15	
	16			16	
	17			17	숙소도착
	18	숙소도착, 세면		18	조별 물품 지원
	19	식사		19	식사
	20	조별시간		20	조별시간
	21	평가		21	평가
	22	취침		22	취침
	23			23	
	24			24	

이동구간 번천분교 → 닷지 → 미마로리 → 생용체석장 → 삼화교 → 탈방
Dam → 삼총체험장 / 도보(33km) 9시간 소요

지역소개 삼척은 1차 산업이 40%(2001년 기준)가량으로 농지면적 대부분이 밭이다. 주요농산물로 쌀, 보리, 옥수수, 감자, 콩, 고랭지채소를 재배한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고랭지채소밭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랭지 채소재배로 인한 백두대간 산림훼손과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계류생태계 오염이 심각하다. 삼척은 무연탄, 시멘트를 비롯한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있어, 주변에는 쌍용체석장 등 많은 체석장들이 있다. 또한 경동광업소는 연간 104만 2000t의석탄을 생산하고 있고, 강원도 석탄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도계 광업소가 있다.

신리(新里)의 너와집 및 민속유물(중요민속자료 33), 대이리 너와집(중요민속자료221), 대이리 통방마(중요민속자료222), 대이리 굽피집(중요민속자료 223)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행사내용 조별 주제 토론
숙소 삼총리 농가 민박
비고

백두대간은 복원을 꿈꾼다

넷째 날 20040515

석회석 광산이 백두대간에 남긴 깊은 상처

자병산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1978년부터 공장을 설립하고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여 현재 약 265ha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의 산림훼손이 발생했다. 현재 백두대간 마루금인 자병산 정상부가 잘려나가 60m 낮아진 상태이다. 향후 추가개발은 자병산 정부상을 150m 더 낮추는 것으로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자병산은 원래 지형보다 200m 이상 낮아진다. 따라서 추가개발을 하면 백두대간 자병산은 생태복원이 불가능 할 정도 지형이 파괴된다. 더욱이 자병산의 실질적인 생태복원은 채광이 모두 종료된 20년 후에나 가능하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야생동식물 80% 이상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대부분 서식하고 있으며, 4대강의 발원지가 된다. 특히, 자병산은 한반도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동·식물상을 자랑하던 곳이다. 식생과 식물상이 한반도 석회암지역 중 가장 탁월하고 학술적, 자연자원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백두대간 주능선인 생계령-자병산-백봉령 일대는 솔나리, 백리향, 산개나리, 만병초, 금강매기나리, 한계령풀, 돌마타리, 관중 등 온갖 희귀한 식물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자병산은 1978년 시멘트 석회석이 채광되면서부터 훼손되었다. 백두대간 훼손문제로 산림청의 행정명령으로 1996년 5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자병산 정상부 일대의 시멘트 채광이 중단되었다가,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233ha 개발을 재신청하여 5차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원주지방청은 1998년 6월 8일 자병산 좌측 붉은자병이골을 포함한 자병산 인근 65ha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협의 조건에 백두대간 훼손을 우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조속히 대체광산을 선정하기로 하고, 1998년 12월부터 추가로 광산을 개발하였다. 현재는 자병산 정상부가 잘려 나가고 서쪽 사면 전체가 파헤쳐져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상태다. 자병산은 복원과 이식에 대한 대책 없는 난개발로 백두대간 생태계를 단절

시키고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병산의 훼손지는 지난 20년 간 생태복원은커녕 산림녹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따라서 대규모 훼손지 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절토사면이 매우 급격한 경사로 파괴되고 대규모 훼손지가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라파즈한라시멘트가 추가개발을 신청하면서 백두대간보존과 생태복원을 전제로 추가개발을 허가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3년 6개월 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다. 추가개발예정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백두대간 상인데다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병산 생태복원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복구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기본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에 구체적 복원계획, 채광 방식 등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안 된 상태이다. 2003년 6월 24일 민관합동협의회에서는 복원계획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매듭지지 못하다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 논의 할 것을 합의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문제가 막 불붙기 시작할 즈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일방적으로 협의 해 주어 자병산 생태복원 논의에 찬물을 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6월 24일 민관합동협의회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생태복원을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합의사실을 왜곡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약 1900여 개소의 크고 작은 광산들이 있으나, 이들 중에서 약 80%가 휴광 또는 폐광된 광산이다. 휴·폐광산들은 생태복원 제대로 되지 않고 환경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상 광산복원 책임을 광업 종료 후 3년간으로 지정하고 있어 휴·폐광의 경우 광산복구 의무자를 찾을 수 없어 결국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산림법상의 복구예치금으로 터무니없이 격어 생태복원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산림녹화도 불가능해 휴·폐광산 대부분이 복원 없이 방치되고 있다. 광산개발 후 휴광 또는 폐광에 대한 생태복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는 현행법으로는 광산개발이 종료된 이후 생태복원을 담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광산복원이 기업의 도덕성만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히 보여준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전에 복원계획이나 복원에 사용되는 예산문제를 해결해야만 실질적인 복원이 가능한 것이다.

생태와 지형의 역사를 밝히는 임계카르스트

임계카르스트 지형은 백두대간 주능선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카르스트 지형으로서 자병산과 생계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형 일대에는 석회암 지층이 발달해 있으며, 자병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석회광산이 개발되고 있다. 임계 카르스트 지형에서 북쪽으로 약 3Km 지점에는 석회동굴인 옥계동굴이 있다.

임계카르스트 지형의 생태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약 200종 이상 되는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으며, 최근에는 희귀종인 한계령풀이 임계카르스트 지형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자병산을 개발 중인 한라시멘트는 석회광산 개발의 확대를 위해 임계카르스트 지형 일대에 여러 갈래의 작업도로를 개설하였다.

임계카르스트 지형은 생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지형의 역사를 밝히는 자연사적 가치도 크다. 임계카르스트 지형 주변에는 인접한 옥계동굴뿐만 아니라 많은 석회동굴이 분포하고 있다. 동굴과 더불어 자연사적 가치가 탁월한 카르스트 지형에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향로봉에서 시작된 백두대간 산줄기가 청옥산(1404m)과 두타산(1353m)으로 이어지는 접점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879.5)은 백리향, 금강애기나리, 솔나리, 꼬리조팝나무 등 희귀식물 군락지와 함께 삶, 고슴도치, 수달 등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동물 서식지가 산 전체에 걸쳐 펼쳐지는 곳이다. 해발고도 1000m에 못 미치는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석회석 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습적인 안개와 함께 남방식물과 북방식물이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 학술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희귀 지형이다.

고운 별빛 아래, 백두대간의 밤

9박 10일 동안 백두대간과 함께 하는
순례단이 보고픈 님들이 아우라지 정선 임계로 찾아오는 날이다.
'왜 백두대간인가'에 관한 명쾌한 이야기들과 가슴 아린 원주민의 아
라리가 궂기에 머물며 남은 순례동안 힘이 될 것이다.
함께 하는 이를 하나하나가 백두대간의 산이 되는 놀이와 공동체 놀이
를 통해 사람도, 백두대간도 하나임을 느끼는 백두대간의 밤 속에서 나
흘간의 이야기꽃도 풀짝 피운다.

백두대간의 밤 행사

시간	행사
19:00~19:10	민사 나누기 - 김제남천장님 환영사 - 모신 님들과 순례팀의 민사 - 대표님의 말씀
19:10~19:40	서재철의 백두대간 슬라이드秀
19:40~19:55	백두대간 보건 팀의 백두대간 이야기
19:55~20:00	정선에서 불리는 마곡리
20:00~20:25	지역민과 함께 마곡리 속으로 - 마곡리 듣기 - 마곡리 배움
20:25~21:25	백두대간 공동체놀이 - 무리는 하자여요
21:25~22:25	대화의 시간
22:25~	취침

함께 아락리를 부르다

아우라지 뱃사공

구절천과 골지천이 만나는 합수머리의 언덕빼기 소나무 숲 속에 댕기머리를 곱게 드리운 채 하염없이 강을 바라보고 서 있는 아우라지 처녀상이 있다. 동상 뒤쪽의 아우라지비에는 다음과 같은 노랫말이 새겨져 있다.

아우라지 뱃사공 떨어진 동백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좀 건네주게

싸리꼴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삼월 님 그리워 나는 못살겠네

개구리란 놈이 뛰는 것은 멀리가자는 뜻이요

이내 몸이 (희쓱해쓱)웃는 뜻은 정들자(정두자)는 뜻일세

왜 생겼나 왜 생겼나 네가 왜 생겼나

남의 눈에 쫓이 되도록 네가 왜 생겼나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정선아라리 중에서 대표적인 이 가사에 얹힌 사연은 매우 유명하다. 1910년대 사랑하는 사이였던 여량리의 한 처녀와 구절리 너머 유천리에 사는 한 총각이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싸리꼴에 동백을 따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밤 사이에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 나룻배가 떠내려갔다.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서로 바라만 보게 된 두 사람의 심정을 당시 아우라지 뱃사공이 정선아라리로 불러냈다. 그 이가 장구를 잘 치는 일명 지장구라는 사람이다. 지장구는 실제 인물이다. 그리고 노랫말 속에 나오는 올동백 따러 가기로 했던 아가씨가 바로 아우라지 처녀상의 주인공이다.

한편 초례를 치른 여량의 한 처녀가 강을 건너 시집으로 가는 날,

하객과 친척들이 많은 짐을 나룻배에 싣고 강을 건너다 무게 중심을 잃고 뒤집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뒤로 해마다 두세 명씩 이 물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처녀상이 세워진 이후로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졌다고 한다.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정선아라리의 발생은 600년 전 조선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려 왕조를 섬기던 선비들 가운데 조선의 창업을 반대하여 송도에 은신하다가 정선(지금의 남면 낙동리 거칠현동)으로 숨어든 이들이 있었다. 그들이 일생 동안 지난날의 임금에게 충절을 맹세하며 산나물을 뜯어먹고 살면서 느꼈던 심정, 그리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한시로 풀었는데, 정선아라리는 이것이 후대로 오면서 민간에 뿌리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만수산은 송도의 만수산을 가리킨다. 비가 올지 억수 장마가 질지 모르는 날씨, 그것은 고려 말의 운명이 바뀌기를 기원하는 것이며, ‘왜 피며, 왜 우나’는 자신들의 처지를 되물어보는 염세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채집된 500여 수의 가사 중에 고려 유신(遺臣)의 사연이 담긴 가사는 많지 않고, 산수, 이별과 애정, 우수와 인생무상, 근면 등을 소재로 자연과 인생을 비유한 것이 많다.

체념 뒤에 우러나온 여유, 또는 깊은 슬픔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삶에 대한 달관이 처연하게 느껴지는 정선아라리 가락은 소리가 그쳐도 미처럼 사연이 깃들인 노랫말 때문에 여운이 길게 남는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명사십리)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장마가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명사십리가 아니라면 해당화는 왜 피며
모(暮) 춘삼월이 아니라면 두견새는 왜 우나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까닭이 있는 공간

당신은 바로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해 이 곳에 태어났다.
남의 삶을 베끼며 살면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하라.
그 때 우주는 전적으로 당신을 토양줄 것이다.

-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중

넷째날 2004. 5. 15 {토}

순 례 팀 일 정	06	기상	06	기상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8	순례	08	지원활동
	09		09	
	10		10	
	11		11	
	12		12	숙소도착
	13	숙소도착, 세면 및 휴식	13	조별 물품 지원
	14	식사	14	식사
	15	조별 토론 및 휴식	15	조별 토론 및 휴식
	16		16	
	17	대간의 밤 준비	17	백두대간의 밤 준비
	18	식사	18	
	19	백두대간의 밤	19	식사
	20		20	
	21		21	
	22	취침	22	
	23		23	
	24		24	

이동구간	삼홍리 농가 민박 → 남면처 → 백봉령 → 자병산 → 백봉령 협터 → 부수배리 계곡 / 도보(17km) 5시간 소요
	백봉령-자병산-생계령은 일계 카르스트 지형이 자리 잡고 있는 자연사적인 가치와 아울러 지리적,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술나리, 백리한, 산기나리, 만병초, 금강이기나리, 한계령풀, 돌마타리, 관중 등 온갖 희귀한 식물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국내 제일의 석회암식생지역이다. 자병산은 라파즈한라시먼트(주)가 1978년부터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광을 시작되면서 해손되었고, 현재는 산 정상부가 사라진 상태이다.
지역소개	1996년부터 백두대간 해손문제가 거론되어 라파즈한라시먼트(주)와 백두대간을 보전하려는 환경단체간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자병산의 라파즈한라시먼트 석회광산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병산의 해손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자병산 정상부가 잘려나가고 서쪽 사면 전체가 파헤쳐져 백두대간 생태축이 단절된 상태이다. 복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백두대간에서 제일 해손이 심하고 복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지역이다.
행사내용	백두대간의 밤
숙소	부수배리 계곡 민박집
비고	

정선 사람들의 삶의 소리, 아라리

다섯째 날 20040516

정선 아라리

일찍이 조선중기의 인문지리학자 이중환(李重煥)은 『백리지(擇里地)』에서 “무릇 나를 동안 길을 걸었는데도 하늘과 해를 볼 수 없었다.”고 정선 땅의 가파른 산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선아리랑은 가파른 산비탈에서는 노동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잔치 때면 어깨춤에 덩실덩실 잘도 넘어가는 소리였다. 새록새록 잡든 손자 손녀에겐 자장가가 되었으며 남녀간엔 말 못할 사랑을 주고받는 언어가 되기도 했다.

술한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시시때때로 만들어진 정선아리랑 가사는 지금 채록된 것만 해도 천여 수가 넘어 세계 단일 민요 가운데 가사가 가장 병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선 사람들은 이런 삶의 소리를 ‘아라리’라고 부른다. 이렇다 할 푸렷 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아리랑 보다는 아라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소리가 다른 아리랑과는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뿌듯한 자부심 때문이다.

‘아라리’라고 불려지던 정선아리랑은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강원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민요가 되었다. 우리나라 아리랑 가운데 정선아리랑이 오랫동안 구전되면서도 명맥을 잘 이어 가는 데는 음악적으로도 이곳 사람들의 정서와 잘 맞아떨어 지기 때문이다. 최고음과 최저음과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이 길게 늘어지고 단조로워 가락만 귀 익으면 즉흥적으로 가사를 만들어 무한정 끊일 수 있다.

명확한 음계와 가사를 기본으로 하는 서양 음악과는 달리 정선아리랑은 가사 중심의 노래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사에 말을 바꿔가며 제 나름대로 만들어 부르다 보니 정선아리랑을 “찢어다 끊으면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다.

정선읍내 물레방아는 물살을 안고 도는데
우리 집에 저 명랑구리는 날 안고 돌 줄 워 몰라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들리는 소리라고 해야 새소리 바람 소리 뿐이던 옛날, 정선아리랑은 삶과 밀접한 내용을 담아 소재로 해서 불려졌다. 따라서 정선아리랑 가사의 내용은 대부분이 남녀간의 사랑과 그리움, 시집살이의 고됨과 서러움 등이었다.

혼자 부를 때는 청승맞으리 만큼 느리고 구성진 소리지만, 여럿이 돌아가면서 부를 때는 해학적이고 원색적인 가사를 자진 가락으로 흥에 겨워 불렀다.

흔히 정선아리랑의 후렴으로 생각하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요 …”는 가사 뒤에 일정하게 따라붙는 후렴(Refrain)이 아니었다. 소리를 들이서 메기고 받다가, 또는 여럿이 한마다씩 돌아가며 부르다가 갑자기 가사가 막힌 사람이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자기 순서가 되어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불렀다. 이 때는 같이 자리한 모두가 함께 불러주어 나누고 어울리는 소리가 되게 했다.

긴 아리랑 가사에 다 담지 못하는 삶의 응어리는 사설을 이야기 하듯 촘촘하게 엮은 ‘엮음아리리’로 불렀다.

우리 집의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얽어매고 짹어매고 장치다리 곰배풀이
노가지나무 지개위에 엽전석냥 걸며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사러 가셨는데
백복령 구비구비 부디 잘다녀오세요
영감은 할멈 치고 할멈은 아치고 아는 개치고 개는 마당치고
마당 웃전에 수양버들은 바람을 휘몰아치는데
우리 집에 저 명랑구리는 낯잠만 자네

앞 부분은 사설로 촘촘 엮어가다가 뒤(밑줄 친 부분)에서는 다시 긴 아리랑 가락으로 부르는 엮음 아리라는 서양음악의 랩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해학과 흥겨움의 골계미를 갖추고 있다.

정선아리랑은 세상살이의 온갖 시름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란 그릇과도 같다. 이 같은 사실은 음악적인 형식이나 천여 수가 넘는 가사의 내용을 눈여겨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백두대간의 밤에서 함께 한 정선 아리리를 기억하며 백복령을 넘어보자.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고갯마루, 삽당령과 닭목재

● 삽당령 : 강릉에서 임계와 태백으로 가는 35번 국도에 있다. 백두대간의 대관령과 백복령 사이, 대화실산(1,010m)과 두리봉(1,033m) 사이를 넘는 길은 2차선으로 포장되었다. 그 쓰임은 백복령과 비슷하여 강릉의 소금 및 해산물이 정선으로 넘어가는 고개였다. 삽당령 성황당은 삼백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왕산면 송현리 사람들이 매년 8월에 소를 잡아 제를 지낸다고 한다. 강릉 남대천이 이 고개에서 발원한다.

● 닭목재 : 닭의 목처럼 길게 뻗은 형상이며, 모지중의 모지었던 주변마을은 사방으로 길이 뚫리면서 고원관광지로 유명해졌다. 왕산리 왕산교에서 닭목재로 오르는 구간의 단풍이 유명하다. 정상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고랭지채소밭 천국인 안빈덕과 고루포기, 피덕령, 용평리조트로 가는 길이 있다. 더 아래쪽의 대기리에서 정선 구절리, 아우라지, 씨감자와 당근이 유명한 고단리마을과 임계방면 길이 관통한다.

까닭이 있는 공간

하늘이 세상을 내일 격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의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쳐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풀과 짹새와 당나귀가 그려 학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오 짐'과 도연령과 '타이너 마티아 텁께'가
그려 학듯이

-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중

다섯째날 2004. 5. 16(일)

순 례 팀 일 정	06	기상	지 월 팀 일 정	06	기상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8	순례		08	지원활동
	09			09	
	10			10	
	11			11	
	12	식사		12	
	13	순례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숙소도착
	19	숙소도착, 세면, 식사		19	조별 물품 지원
	20	박그림 슬라이드 강연		20	식사, 조별시간
	21			21	평가
	22	취침		22	취침
	23			23	
	24			24	

이동구간	백봉령 쉴터 → 백봉령 휴게소 → 화성교 → 삽당령 기도원 →
	신작 → 대기분교
	도보(35km) 10시간 소요
지역소개	정선군 임계면에서 강릉시 왕산으로 넘어가는 지점이다. 백두대간은 북쪽으로는 강릉시와 접하고, 북서쪽으로는 평창군이, 남쪽은 영월군이, 동쪽으로는 동해시·삼척시·태백시와 인접한다. 강원도의 산간오지로 대부분 높고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한강과 동강의 최상류지역으로 석탄·석회석 등 지하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다. 특히 회동(枯洞)-용탄(龍潭)과, 남면의 무릉리(武陵里) 발구덕 마을, 임계면 직원리(棲院里) 부근 등지에 석회암 지층인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해 군내 각지에 여러 개의 석회동굴이 분포한다. 백두대간의 고개마루 삽당령을 지나는 길에 성황당을 만나게 된다.
행사내용	박그림 선생님 슬라이드 강연
축소	대기분교(체험관)
비고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여섯째 날 20040517

썩어들어 가는 생명수 – 도암댐을 폐쇄하라

2002년 8월 말 강원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그 중 영월과 정선은 댐으로 인해 더 심각한 재해를 겪었다. 태풍이나 장마에 대비하는 것이 댐인데 오히려 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분명 댐으로 인해 큰 물난리를 겪었다.

도암댐은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역변경식 수력댐이다. 도암댐은 최악의 오염으로 물을 방류하지 못해서 큰비가 오면 한꺼번에 물을 내 보내야 하는 운명이다. 그래서 큰 비만 오면 난리인데 근본 원인은 무모하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서 건설했기 때문이다. 남한강 수계의 최상류지역인 평창에 들어선 도암댐은 초기부터 썩어가기 시작했다. 2004년 현재 4급수 전락하여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는 최악의 댐이다. 원인은 지난 15년 전 시작되었다. 한전에서 91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가 주범이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와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에 걸쳐 있는 이 댐과 발전소는 기존의 수력발전소와는 다른 발전방식으로 건설되었다. 강릉수력발전소는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에 도암호에 모이는 물을 백두대간 지하에 15km나 되는 도수관을 뚫어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의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면 그럴듯한 강릉수력발전소는 수계를 인위적으로 뒤바꾸는 발상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엄청난 무모함으로 시작되었다. 물관리에서 기본은, 수계와 유역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날 여러 환경적인 결과 대한 고려 없이 무모하게 수계를 뒤바꾸어 10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심각한 오염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강릉수력발전소는 한전이 지난 85년 착공하여 91년 준공과 함께 가동하였다. 당시 돈으로 1,163억원을 들인 큰 사업이었다. 그러나 큰 사업에 비해 당연히 따라야 할 수질 등의 환경영향에 대한 일체의 고려는 하지 않고 운영되었다. 도암댐은 평창군 도암면 일대의 모든 물줄기가 송천이라는 하천으로 모여 집결되는 곳에 지어진 댐이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삼양축산, 한일산업

등 국내 제일의 축산단지로 대규모 목장과 70여개의 소규모 목장이 산재하고 있다. 여기에다 스키장과 골프장, 콘도가 있는 용평리조트가 있고 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한 고랭지채소밭 등의 상당한 오염원이 널려있다. 한전은 이런 오염원에 대해서 댐건설 당시부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미 건설초기부터 수질오염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건설당시 오염원에 대한 수질대책을 검토 지시했으나 한전은 무시했다. 지난 87년 도암댐과 강릉수력발전소가 한창 지어질 무렵 감사원에서 '환경청의 수질분석에 근거하여' 하여 댐이 완성된 이후 나타날 도암댐의 오염에 따른 강릉쪽의 수질대책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일체 묵살했다.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는 수질오염 이외에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댐이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약 35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였다. 애초 경제성도 없는 댐을 짓고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은 한전 같은 대형 공기업의 자신의 철밥통을 보장하기 위해 자주 쓰는 수법이다.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낭비했다. 경제성도 없고 부작용만 낳는 대형사업을 마구 벌여서라도 자신들이 존립근거를 만들어 나라돈만 축내는 것이다. 실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에 쏟아 부은 돈만 해도 그 당시 돈으로 1,16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썼다. 당시와 지금의 돈 차이를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다. 지금도 1,163억이면 도암댐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두개는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한전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이 댐과 발전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도 전력수급량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사업인지 단박에 드러난다.

그 동안 도암댐의 오염원을 개선하기 위해 강릉지역에서는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 2002년 이전까지 약 5동안 강릉지역의 최대 현안이 도암댐 문제였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도암댐을 더 이상 백두대간의 허리를 뚫은 도수로를 통해 강릉으로 물을 내 보지 않게 되었다. 강릉시민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댐을 폐쇄하지 않고 강릉으로 물을 내보지 않으면서 영월과 경선에 물난리가 난 것이다.

이제라도 도암댐은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성도 최악이며 물난리를 가져오는 유익함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이 도암댐이다. 만약 도암댐의 유익함을 억지로라도 언급한다면 ‘국책사업이 잘못되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국민에게 고통으로 전가하는지를 생생한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그 자체다.

백두대간에 불어오는 풍력바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관령에 대규모 풍력단지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풍력발전단지 건설에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발 예정지는 강원풍력발전 건설사업 사전협의서에서도 약 50% 정도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법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오대산국립공원 노인봉-매봉-곤선봉-대관령-능경봉-고루포기산-옥녀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주능선으로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동쪽은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도 급경사지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경우는 드물다. 풍력발전은 지속적인 풍속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풍력기 뿐 아니라 저속의 바람 등을 대비해 발전기단지와 송전 선로가 필요하다. 대관령은 기업식 고랭지채소밭, 목장, 도로 등으로 계속해서 훼손되어왔다. 만약 이곳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곳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강원도가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자 함은 고용창출, 교육,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만을 염두에 두고,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이나 보전에 대한 개념이 없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들에게도 절대 미득이 되지 않는다. 강원도의 생태계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의 교육 자료가 되고, 관광자원이 된다. 또한 이것을 유지하고 보전하는데 고용을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풍력에너지는 분명 대안에너지이다. 하지만 자연생태계와 우거진 산림 또한 소중한 대안에너지이다. 과연 우리는 백두대간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섯째날 2004. 5. 17(월)

순 례 팀 일 정	06	기상	지 월 팀 일 정	06	기상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8	순례		08	지원활동
	09			09	
	10			10	
	11			11	
	12	식사		12	
	13	순례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숙소도착
	19	숙소도착, 세면		19	조별 물품 지원
	20	식사, 조별 시간		20	식사, 조별 시간
	21	평가		21	평가
	22	취침		22	취침
	23			23	
	24			24	

이동구간 대기분교 → 곰자리교 → 파동령 → 도암댐 → 용산교회 → 웨정
삼거리 → 오대산민박 / 도보(34km) 10시간 소요

지역소개 강릉시 왕산면, 동강의 최상류인 대기천과 송천이 흐른다. 수 달이 살고 있는 맑은 물이다. 한수원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댐을 건설하면서 물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최상류에 고랭지 채소밭과 삼양목장, 용평리조트, 평창군 도암면 같은 대규모 모염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태풍 루사 때 도암댐의 물을 일부 방류했다가 하류인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동강의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했다. 밭왕산 용평스키장 전력수급을 위해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송전탑을 건설하였다. 송전탑 건설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피덕령, 고루포기산 같이 산정 상부의 대규모 고랭지 채소밭이 경작되고 있다.

행사내용 조별 주제 토론

숙소 오대산 민박

비고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로 열리는 오대산국립공원

일곱째 날 20040518

한반도 허리의 생태보고 오대산

오대산국립공원은 강원도를 관통하는 백두대간의 거점으로 설악산과 태백산을 연결하는 생태계의 연결통로다. 지리산과 함께 국내 제일의 숲을 간직하고 있다.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해발 1400m가 넘는 많은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다. 오대산에는 주목, 가문비를 비롯하여 아름드리 전나무 고산침엽수가 다양하고 1000여종에 달하는 식물생태계의 보고다. 더욱이 북한강과 남한강을 나누어 주는 분기점이 바로 오대산에서 시작하고 있다. 오대산은 백두대간에서도 꼽히는 명산이자 큰 산이다. 산 전체의 규모로 보자면 지리산이나 설악산에 뒤지지 않을 규모다. 백두대간 산줄기로만 따져보아도 남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대관령이 포함되고 북쪽으로는 56번 국도가 넘어가는 구룡령까지 포함된다.

오대산의 중추인 비로봉-북대사고개-두로봉 일대는 분비나무를 비롯해 잣나무, 주목, 전나무 같은 고산 침엽수 들이 즐비하다. 두로봉은 백두대간의 큰 봉우리 중 하나로 산림청에서 지정보호하는 주목군락지 천연보호림이 있다. 북대사관통도로 양쪽에는 나이가 백년도 더 된 나무들이 즐비하다. 나무의 허리둘레가 2m 이상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키가 30cm이 넘는 전나무도 무리를 이루고 있다. 구룡령에서 오대산으로 접어드는 능선상에는 금강초롱, 암은부채 등의 희귀한 풀꽃 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구룡령에서 두로봉을 통해 나가는 산군에는 신갈, 분비, 주목, 물푸레 같은 큰키나무들이 많다. 이 곳은 큰키나무, 중간기나무, 작은키나무, 풀꽃류 등의 전형적인 4층 구조의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오대산은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산양, 사향노루, 수달, 하늘다람쥐, 삵, 담비, 늑대, 여우 등 온갖 멸종위기종의 보고다. 또한 꼬리치레도룡뇽, 물두꺼비, 산개구리, 까치살모사 등 양서파충류들에게도 낙원이다.

오대산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나누어 주는 한강의 분수계를 산의 가운데에 품고 있다. 그래서 많은 물줄기들이 천지 사방으로 펼쳐 나

간다. 산의 북동쪽인 미천골을 중심으로 양양군 서면 쪽으로 빠지는 계곡은 후천이다. 동해 바다로 나가는 물줄기인 후천은 공수천 계곡으로 불리기도 한다. 후천의 하류는 남대천으로 이어지는데 남대천은 연어의 회귀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홍천군 내면 쪽으로 빠지는 계곡은 계방천이다. 계방천은 오대산과 계방산에서 빠지는 여러 계곡을 아우르며 내린천으로 흘러 북한강으로 이어지게 된다. 계방천은 열목어가 서식하는 청정하천이다. 구룡령에서 흐르는 후천, 계방천에 모두 수달이 살고 있다. 이렇듯 오대산은 능선이나 계곡이나 모두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놓칠 수 없는 곳이다. 남한강 쪽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주요한 입구인 월정사 일대의 오대천이 대표적이다. 수달의 서식지이며 꼬리치레도룡뇽이 주변의 상류계곡이 많이 살고 있다. 오대천은 동강 최상류지역으로 평창을 지나서 정선에 가서 아우라지로 유명한 조양강과 만나서 물길이 커지면서 최종에는 동강에 합류한다.

오대산의 북쪽권역인 홍천 내면 일대는 전쟁 전까지 북한 땅이었다. 38선이 홍천 명개리 일대를 지나갔다. 그래서 주민들도 북한 주민이었다가 전쟁 이후 남한사람이 되었다. 오대산은 지리산과 함께 빨치산의 역사가 깊은 곳이다. 아울러 전쟁의 역사가 깊게 남아 있는 산이다. 오대산의 남쪽권역인 진고개-노인병-소황병산 일대는 한국전쟁 때 중공군 1개 사단이 전멸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산나물을 뜯거나 약초를 캐러 숲에 들어가면 간혹 불발탄을 발견하기도 한다.

오대산은 워낙 산이 크고 넓어 그 넉넉한 품을 이루르는 것이 만만치 않다. 강원도 평창, 홍천, 강릉, 양양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이 중 양양 쪽에 걸친 오대산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오지가 많다. 평창은 계방산 쪽의 노동리 일대를 비롯하여 삼양목장 일대를 비롯하여 방아다리 약수터 등이 있다. 홍천은 내면 명개리를 비롯하여 창촌의 을수골 등이 있다. 양양은 미천골, 법수치리, 면옥치리, 어성천이다. 주변에 주요 국도가 포장되기 전에는 참 오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는데 도로가 포장되고 난 후부터는 귀동냥, 눈동냥 등을 통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금강초롱 만발하는 오대산관통도로를 그대로 둬라

오대산국립공원 한 가운데 해발 1300를 넘는 도로가 하나 있다. 바로 오대산 북대사 관통도로다. 현재 466지방도로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도로시설이나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하지만 도로에 대한 통제는 오대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이 도로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리와 평창군 진부면을 경계로 서로를 넘나들고 있는데 비포장도로이지만 일반 승용차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좋다. 노폭이 10m가 넘는 대형 도로라 보통의 승용차들도 아무런 부담없이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라기보다 관광도로의 역할만 하고 있다. 실제 도로의 경계인 평창군 진부면과 홍천군 내면 주민들은 이 도로를 교통로로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쪽에 있는 운두령 관통도로인 31번 국도를 이용하고 있다.

오대산 관통도로는 일년 중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만 사용된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면 통행이 전면불가능하고 눈이 없더라도 11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경방기간이라 이용이 제한된다. 그래서 실제 이용기간도 짧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은 거의 미약한 실정이다. 유일한 기능은 관광이나 등산 그리고 더 은밀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목도벌과 밀렵, 산나물채취 등이다. 오대산은 지리산과 버금가는 자연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실제로 가을이면 관통도로 주변에는 한국특산종인 금강초롱이 만발하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금강초롱과 칼잎옹담의 서식처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이 도로의 홍천쪽 진입부인 명개리 계곡은 오대산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달의 서식처다. 강원도의 여러 계곡과 하천에 수달이 살고 있지만 명개리 계곡처럼 서식밀도가 높은 곳은 드물다. 국립공원과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해서 오대산관통도로의 차량진입을 영구히 전면 폐쇄하는 것은 시급히 검토해 볼 사안이다.

일곱째날 2004. 5. 18(화)

순 례 팀 일 정	06	세면, 식사, 출발준비	06	세면, 식사, 출발준비
	07	순례	07	지원활동
	08		08	
	09		09	
	10		10	
	11		11	
	12	식사	12	
	13	순례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숙소도착
	19	숙소도착, 세면	19	조별 물품 지원
	20	식사	20	식사
	21	조별시간	21	조별시간
	22	취침	22	취침
	23		23	
	24		24	

이동구간	오대산민박 →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 → 상원사 → 국립공원관리사무소 → 외청도리 → 삼봉휴양림 / 도보(38km) 11시간 소요
	평창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주 봉우리인 비로봉 외에 호령봉(1531m), 상왕봉(1491m), 두로봉(1422m)등 높은 봉우리가 많다.
지역소개	오대산국립공원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비포장도로가 나있다. 이 비포장도로는 북대사를 지나서 북대사관통도로로 불린다. 강원도는 북대사관통도로를 지방도로 편입시켰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북대사관통도로를 포장을 시도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포장을 하지 못했다. 현재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찰인 상원사의 요구로 상원사-월정사간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려고 한다. 포장만이 해답인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심각히 고민해야한다.
행사내용	주제와 따뜻한 차가 있는 밤
축 소	삼봉 자연 휴양림
비 고	

한강 상류 민물고기의 보고

여덟째 날 20040519

찬 계곡물과 울창한 숲에서 사라지는 긴대종

독특한 환경 조건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을 지표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표 생물을 이용하면 그 지역의 환경 조건이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1급수의 지표생물에는 열목어, 옆새우, 틀라나리아 등이 있다. 이들은 대개 강의 최상류나 계곡에서나 볼 수 있다.

열목어는 냉수성 어류로서 여름에는 물속 차갑고 깊은 곳에 살며 늦은 가을과 겨울에는 얼음 밑에서 발견된다. 몸길이는 30~70cm이며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하다. 입이 작고 구치(口齒)는 2줄이며 기름지느러미가 있다. 몸 빛깔은 은색 바탕에 눈 사이와 옆구리·등지느러미·가슴지느러미에 크고 작은 자홍색의 불규칙한 작은 반점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진안군 백운면(섬진강 상류)과 경북 봉화군 소천면 등지가 분포의 남한계이다. 서식지의 열목어가 희귀해짐에 따라,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정암사의 열목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제73호(1962),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를 제74호(1962)로 지정하여 보존에 힘쓰고 있다.

1996년 1월에는 환경부가 특정보호어종으로 지정함으로써 허가 없이 이를 채취·포획·가공·유통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서식지 파괴와 근절되지 않는 남획으로부터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다. 희귀하다는 유명세 탓에 유난히 수난을 받아온 열목어는 지난 10여년 사이 서식지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내면계곡은 한여름에도 섭씨 20도 미하의 차가운 얼음물이 흘러 북방계 냉수성 어종의 보고로 꽂혀왔다.

이곳은 지금은 서울을 출발한 지 3시간 남짓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고 국도 56번와, 446번 국도가 내린천을 따라 완공되었다. 넓은 도로와 다리는 오대산과 설악산, 동해안으로 둘려드는 도시 행락객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냉수성 물고기들에게는 재앙이다. 물고기들은 힘쓸려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맑아지면 곧 안정된 생태계로 돌아가지만, 인위적으로 하천바닥을 굽어내 자갈이 없어지고 축탕물이 오래도록 흐르면 숨을 곳이 없어진다.

삼둔 사가리의 사람들

우리나라만큼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삶을 경험한 사회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50대 이상의 중년의 경우, 50년이라는 시간동안 농업사회, 산업 사회, 정보화사회 모두를 체험했다. 풀치위를 탄 시간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잊은 것들도 많았다. 개발과 도약이라는 이름아래 소리 없이 사라져간 것들은 일일이 가늠하기도 어렵다. 언제,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실물들은 변변한 보관센터 없이 어디선가 나뒹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희미하고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 있는 잊어버린 물건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오지(奥地), 요행히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흐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겐 한없이 빠르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 반대다. '정감록(鄭繼錄)'에 보면 '삼둔 사가리'라는 글귀가 나온다. 둔이란 평평침한 산기슭을, 가리(거리)란 사람이 살 만한 계곡가로서 난리를 피해 숨을 만한 피난처를 뜻한다. 풍천군 내면의 살둔(생둔), 월둔, 달둔과 인제군 기린면의 아침가리, 연가리, 적가리, 명지가리(결가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삼둔 사
가리에 사는 사
람들 중에는 6·
25 전쟁이 일어
났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오지
에는 현재의 우
리와는 다른 시
간대를 사는 사
람들이 살고 있
다.



그곳 사람들의 시간 속엔 우리가 알고 있는 폐기와 삭제의 시간들이 없다. 그들에게는 분실물 보관센터가 필요 없다.

오지의 문화는 연속적이고 독립적이다. 단절이나 분절이 없고 외부문화

와의 교류도 약했기에 오지 문화에는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다. 오지가 우리 전통 문화의 분실률 보관센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오지라고 해서 꼭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는 산악지대이다. 백두대간은 이 산악지역의 중심부를 차지한다. 백두대간의 산간문화를 기록함은 곧 한국 전통 문화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 알려졌었고 불편한 교통으로 접근성이 떨어졌기에 오히려 백두대간은 전통을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다. 마치 점봉산이 설악산 국립공원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흐드러지는 야생화와 숨 막히는 극상림을 보듬을 수 있었던 아이러니처럼.

문화는 현재 진행형일 때 가장 가치가 있다. 살아 맥동치는 문화의 충돌 속에 문화는 풍부해지고 둥충 깊어진다. 게다가 현재 진행형인 문화는 애써 기록하거나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최첨단의 영상도 구나 녹음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생생한 '삶' 자체가 백두대간에 있다. 그 삶에 방해되지 않도록 소리죽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끗. 오래된 미래 백두대간이다.

까닭이 있는 공간

홍서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너도 짊었을 때는
무척 짊었다는 걸

일본식 하이쿠 중

여덟째날 2004. 5. 19 (수)

순 례 팀 일 정	06	06
	07	07
	08 기상	08 기상
	09 세면, 식사, 출발준비	09 세면, 식사, 출발준비
	10 순례	10 지원 활동
	11	11
	12	12
	13 식사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식사 및 휴식	18
	19 순례	19
	20	20 숙소도착
	21 숙소도착, 세면	21 조별 물품 지원
	22 조별시간	22 조별시간
	23 취침	23 취침
	24	24

이동구간	삼봉 휴양림 → 월둔교 → 월둔고개 → 아침가리골 → 조경동 → 방동약수 → 방동리 / 도보(32km) 9시간 소요
	홍천은 백두대간 중에서도 모지로 손꼽힌다. 강원도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에는 춘천시와 인제군에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횡성군과 평창군과 맞닿아, 강원도 중에서도 내륙지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지나게 될 내면은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백 47km의 면적에, 4천 여 명의 주민이 사는 오지라고 할 수 있으며 3둔 4가리의 마을로 불린다. 물이 유난히 맑은 곳이어서 어류학자들로부터 '무주 구천동을 10개쯤 모아놓은 곳"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한 곳이다. 홍천군의 내면의 맑은 계곡은 오대산-계방산-용봉산 같은 백두대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곳으로부터 발원한 계방천, 자원천, 조항천은 내린천에서 한데 모이고 그곳에 자리한 내면계곡은 작은 여울과 소, 그리고 폭포가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섭씨 20도 이하의 차가운 얼음물이 흐르고 있다. 깊은 계곡 물에는 1급수에서만 자라는 열목어 도룡뇽, 반딧불이, 가재가 살고 있다. 창촌면 일대의 자운리, 명개리, 광원리, 창촌리 일대가 아름드리 전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의 힙엽수와 거제수나무, 박달나무 등의 펄엽수로 출렁한 숲을 이룬다.
행사내용	야간 산행
숙소	방동리 민박
비고	

백두대간, 공존을 꿈꾸다
아홉째 날 2004 0520

점봉산을 파괴하는 양양양수댐

설악산과 오대산의 중간에 위치한 남한최대의 활엽수 천연림을 자랑하는 생태계의 보고 점봉산 하지만 이 산에는 지난 97년부터 시련이 시작되었다. 한천의 양수댐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점봉산 진동 계곡에는 5만 7천평의 상부댐이, 영덕리 남대천의 상류인 후천에는 수몰 면적 30만평의 하부댐이 들어서고 있다. 백두대간의 마루 양쪽에 위치하게 되며, 양쪽의 댐을 잇는 3.5km의 지하 도수터널이 백두대간을 관통한다. 시설용량 100만kw 의 양수 발전소다.

양수댐이란 큰 산을 가운데 두고 양쪽 편에 고도 차이가 나는 댐 두 개를 지어 수차를 이용하여 수력발전을 하는 댐이다. 낮 시간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때, 상부댐에서 하부댐으로 수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을 한다. 반대로 심야의 전력소비량이 줄어드는 시간에 남는 전기를 이용, 터빈을 돌려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린다.

이 발전 원리에서 중요한 대목은 원자력 발전의 이용이다.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한 번 가동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전기는 여타 에너지와는 달리 저장이 안된다. 한 번 전기를 일으키면 가두어 두거나 묶어둘 수가 없다. 이런 원리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는 양수발전소를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장기전력수급계획의 기본방향이 주로 원자력발전에 의해서 추진도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수발전소 같은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표> 국내 양수발전소 현황

구 분	위 치	발전용량 (만kw)	만수면적(만평)		유효저수량 (만톤)	최대낙차 (m)	준공일
			상부지	하부지			
점봉산	강원 양양·인제군	100	6.0	24.8	420	819	2003.10
지리산	경남 산청군	70	7.3	11.2	566	429	1999.12
례성산	전북 무주군	60	5.5	18.0	281	589	1996. 6
함관진	경남 밀양군	60	7.4	18.8	478	348	1986. 4
청 평	경기 가평군	40	4.6	632	240	489	1980. 4

점봉산·양양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와 양양군 서면 영덕리 일대다. 상부댐이 들어서는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일대의 진동 계곡은 점봉산에서 발원한 물이 흐른다. 수려한 점봉산과 함께 하부댐이 들어서는 양양군 영덕리 일대부터 동해안까지는

국내 유일의 연어 회귀천이다.

첨봉산(1424m)은 인제군과 양양군에 경계하며, 일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2,049km²가 천연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진동계곡의 원시림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기후와 토양조건 아래서 생태계가 3백~4백 년 동안 관광개발, 전쟁,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한 훼손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룩된 안정된 '극상림'을 형성하고 있다. '극상림'이란 나무와 풀들이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생태적으로 최고의 안정된 상태의 삼림을 말한다. 신갈나무를 비롯한 원시 활엽수림과 전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숲은 그 자체가 자연 수목 박물관이다. 첨봉산은 854종의 식생을 자랑한다. 주목, 등대시호, 한계령풀, 첨봉산엉겅퀴 등 희귀식물을 비롯해 모데미풀, 금강초롱꽃, 진부애기나리 등 36종의 한국특산식물이 있다. 이중 10여 종은 법정보호식물로 지정되어 있다. 모데미풀은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다른 지역에는 찾아 볼 수 없는 식물이다. 첨봉산의 모데미풀은 남한의 최북단 서식지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가치 또한 크다. 우리나라 식물 진화의 산 역사가 바로 첨봉산이다. 동물들의 서식도 식물 못지않다. 포유류로서는 멸종 위기종인 삵, 늑대, 목도리담비 등 4종과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등 총 31종이 조사되었다. 진동계곡에 서식하는 어류로는 열목어, 금강모치, 꺽지, 배가사리, 쉬리 등이 대표적이다. 열목어와 금강모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한국특산종이다. 이 곳은 국내 최고의 생물 다양성을 자진 지역이다. 더불어 이 지역은 오색에서 첨봉산으로 뻗어가는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에 연이은 국내 유일의 원시림으로 불리는 천연림 보호구역에 이어 199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보존권 핵심 지역으로부터도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이다.

본래 진동 계곡의 마을은 강원도 인제군에서도 가장 오지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진동 2리를 비롯한 진동리 주민들은 한전의 양수댐 공사로 인해 지역사회가 파탄나는 위기감과 피해의식이 들어가고 있으며 인제군에서 지정한 열목어 서식지가 위협받은 지는 이미 오래다. 한전과 주민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민과 한전 간의 대립과 마찰의 가능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살아있는 자연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생태적 가치가 대단한 첨봉산 진동계곡의 수난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댐공사 시작된지 8년이 지났다. 한전은 여전히 산림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 95년부터 측량을 시작하여 97년 봄부터 벌목을 하며 산을 갈아엎기 시작하였다. 2004년 5월 현재 상부댐은 80% 가량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다. 댐 주변은 천연 숲에서 누린 황토

흙으로 변해있고 도수터널도 확실히 드러나 있다. 댐공사가 시작되기 전 벌막골은 녹지등급 8등급 이상의 천연림으로 100년 이상된 신갈나무와 피나무 등 아름드리 숲이 우거져 있었다. 하늘을 가릴듯 울창했던 숲 속에는 금강초롱을 비롯하여 온갖 희귀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 숲에는 식물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도 서식하고 있는 낙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흉물스러운 댐이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첨봉산의 양수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부실로 작성되었다. 허위와 조작에 의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지역주민들의 층언에서도 곳곳에 나타난다. 식물과 동물 모두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작성되어 댐공사가 주변지역의 생태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 첨봉산 양수댐의 환경영향평가서는 강원대의 모교수를 몇몇 교수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댐 공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97년에도 환경영향평가서의 불거졌으나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요즈음은 그 문제점이 좀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첨봉산같은 천혜의 자연보고에 양수댐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나 산림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는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 서다. 애초에 자연환경법이나 산림법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었다. 첨봉산 댐은 산업자원부의 주도로 13개 관련 부처가 모여 일괄타결 방식으로 날림으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공사과정의 많은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산림청이 환경부는 “전원개발특례법으로 일괄 타결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첨봉산은 환경영향 평가가 잘못되면 국토의 허파가 어떻게 파괴되고 훼손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아뿔사! 백두대간을 끊다니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마루금이 있는 조침령은 2001년 11월부터 내설악 남부 동서연결도로인 조침령도로 공사 중이다. 조침령도로는 지방도 418호선으로 내설악 남부의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 양양군 서면 서림리를 잇는 총연장 9.71km이며 1,130m의 터널구간이 포함되며 총사업비 401억원을 투자 오는 2005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조침령도로는 한전에서 양양 양수발전소건설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지만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될 위기를 맞아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강원도에서 1999년 8월부터 한전과 확포장공사 초기추진을 위해 5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사업비 일부인 146억원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00년 4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같은 해 11월에 마치고, 곧바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검토협의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하게 된 것이다. 본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인제군 기린면과 양양간의 통행시간이 현재 1시간3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되며 이동거리도 현재의 83km에서 42.8km로 40여 km가 단축된다.

이처럼 백두대간에는 주요한 고개마다 많은 도로가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개설은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포장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노면의 포장뿐만 아니라 노폭의 확장으로 인해 절개면이 발생한다. 이는 백두대간이 가지는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반도 동·식물의 주요한 서식처이자 연결고리인 백두대간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고립화된 개별 산들의 나열로 전락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포장도로 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공사과정의 날림공사나 부설공사는 태풍이나 수해 시 산사태 등을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포장도로 건설 이후 절개지가 무너지는 재해를 유발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는 물론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생태계의 단절과 이분화로 인해 특히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포장도로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동물생태계의 서식처인 백두대간을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다.

까닭이 있는 공간

해진 후에 벌들이 언덕과 나무 숲 뒤에서 무리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좀더 호기심에 차고 감동적인 밤을 보내지 못한 나의 무능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소통무의 일기 중

아홉째날 2004. 5. 20(수)

순 례 팀 일 정	06	기상	06	기상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7	세면, 식사, 출발준비
	08	순례	08	지원 활동
	09		09	
	10		10	
	11		11	
	12	식사	12	
	13	순례	13	
	14		14	
	15		15	
	16		16	숙소도착
	17	숙소도착, 세면휴식	17	조별 물품 지원
	18	식사	18	식사
	19	조별 시간, 휴식	19	조별 시간, 휴식
	20	백두대간, 공존을 꿈꾸다	20	백두대간, 공존을 꿈꾸다
	21		21	
	22		22	
	23		23	
	24		24	

이동구간 인제 방동리 → 방디천 계곡 → 쇠나드리 → 조첨령 → 월이교
 → 양양 미천골 휴양림 / 도보(28km) 8시간 소요

마지막 날, 백두대간의 가장 아름다운 숲을 찾아간다. 점봉산과 진동계곡은 남한지역 최고의 자연생태계를 간직한 살아있는 자연생태계의 박물관이다. 점봉산은 인제군과 양양군에 경계하며, 일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2049㏊가 천연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진동계곡의 원시림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기후와 토양조건 아래서 생태계가 3~4백 년 동안 관광개발, 전쟁,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한 훼손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안정된 '극상림'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소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전의 양수댐이 들어서면서 백두대간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 이곳은 인제 기린면에서 비포장도로로 36km거리에 떨어져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으나 지금은 2차선의 확포장사업과, 백두대간 고갯마루인 조첨령에 인제와 양양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한창이다. 도로가 새롭게 확포장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된다.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는 이곳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행사내용 백두대간, 공존을 꿈꾸다

숙소 미천골 휴양림

비고

● 함께 풀어 보아요~~~

백두산에서 출발해서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 한반도를 이루고 지탱하고 있는 백두대간, 뜻 생명들의 보금자리이고, 물줄기의 시작이고, 우리네 문화를 만들 어준 삶의 터전, 백두대간에 대한 궁금증을 퍼즐로 풀어봅니다. 흙먼지 마시며 우리 땅의 평화를 생각하며 걷는 녹색순례기간 동안 문제를 풀어보세요. 퍼즐의 씨줄과 날줄을 잘 엮은 님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씨줄엮기

1.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에 있는 소(沼) 한강의 발원지.

3.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황지연못, 매봉산이 ○○시에 들어앉아 있죠. 한때 광산이 번성했던 곳이죠.

4. 외지고 깊은 산골, ○○산골.

6. 우리 민족의 발원지, 두만강과 압록강이 이 산의 천지에서 시작되었죠.

8. 한라산, 모름, 성인봉, 환태평양 조산대, 용암, 칼데라….

9. 땅의 형세나 방위를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련시켜 설명하는 학설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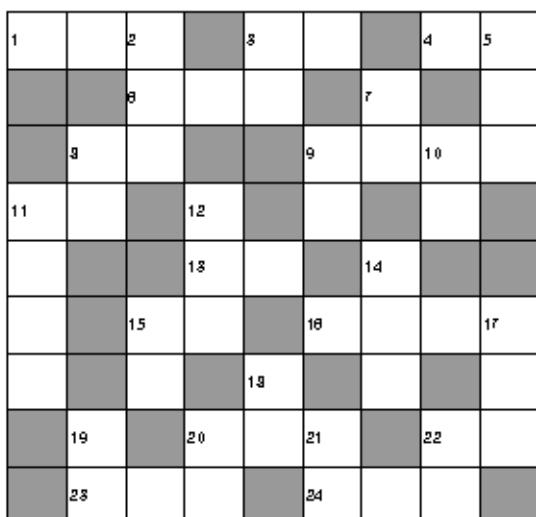
11.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지님, 보호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13. 둥근 달이 떴어요.

15. 동요, 가요, 민요, 농요, 자장가….

16. 길을 잃었을 때 이 방향을 잘 찾아야 하죠. 셋, 하늬, 마, 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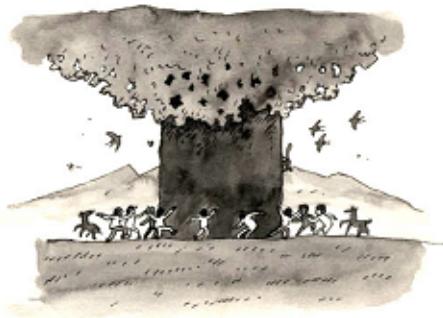
20.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이것은 죽어 가죽을 남기죠. 한반도에 아직 이 동물이 살아 있을까요?



22.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녹색연합은 이 곳에 생태발자국을 적게 남기려고 활동하고 있지요.
23. 밤하늘의 별들이 강물이 흐르듯 떠 있지요. 순우리말로 “미리내”라고 하죠.
24. 사자, 황소, 쌍등이, 처녀, 전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 날줄엮기

2. 충북 단양과 경북 영주 사이에 있는 산이죠. 연화봉과 희방사가 있고, 철쭉제가 유명하죠.
3. 티끌 모아 ○○.
5. “산에 산에 산에 다 나무를 심자. ○○○가 살게시리 나무를 심자♪♪.”
7. 암컷과 수컷.
8. 깊은 산에 불을 지르고 밭을 일궈 감자와 옥수수를 먹고 살았대요.
9. ① 경치, ② 절집의 처마 끝에 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이 경쇠의 소리는 무척 경쾌하죠.
10. 등고선, 대축적, 소축적, 김정호, 동국여지승람.
11. 봄날,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울지 않아 이 고개를 넘기가 아주 힘겨웠죠.
12. “나 보기ga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14. 늦가을에 아주 되개 내린 서리. 이것이 내리면 모든 초록은 그만 시들고 겨울 속으로 숨어들죠.
15. 천왕봉, 반마봉과 함께 지리산의 3대봉 중 하나. 도교(道教)에서 온 말로, 우리말로는 “활미단”이라고 하죠.
17. 적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북극, 북아메리카는 이곳에 자리잡고 있죠.
18. 연애, 박애, 우애, 자비, 애국심, 첫○○….
19. 은혜를 갚음.
21. 헤어졌어요.



닫는 글

여행은 떠남과 만남입니다. 그리고 돌아옴입니다.

.....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우리의 아픈 상처로 돌아오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는 만남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 삶의 방식인 문화에 최대한으로 겹손한 자세로 다가갈 뿐입니다. 그것이 비록 가난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곳에서 삶을 푸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지혜와 노력의 결정(結晶)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교되거나 평가되기 이전에 먼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쉽게 관여하려는 것은 오만과 무지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일구어온 인류의 귀중한 자산을 훼손하는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원해 떠날 수 없듯이 그들 역시 떠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과거를 짊짜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은 돌아옴(歸)입니다. 정직한 고향이며 겹손한 만남입니다. 나 자신으로 돌아옴이며 타인에 대한 겹손한 이해입니다. 이 정직한 고향과 겹손한 이해가 없는 한 서로 다른 세계가 평화롭고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20세기의 아픈 과거를 떠나 새로운 세기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신영복 선생님의 글 중

● 2004년 녹색순례에 도움주신 님들

열흘 동안의 녹색순례,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례단을 도와주신 많은 님들의 힘으로 녹색순례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녹색순례를 통해 더욱 성장한 환경활동가가 되겠습니다.

- * 사람과 산에서 티셔츠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 * 권용호 회원님이 자료집 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 * 최병수 작가님께서 녹색순례 로고 디자인을 후원해 주셨습니다.(2004 녹색순례 로고의 원안은 최병수 작가님의 “장산꽃매”를 사용하였습니다.)
- * 산림청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 *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오대산관통도로 통과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 * 무공이네에서 쌀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 참고자료

백두대간 녹색순례 자료집은 현장을 오르며 뛰며 땀으로 만든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여러 연구와 언론사의 내용들을 녹색순례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에 애정을 가지고 관련글과 자료를 남기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더불어 자료집을 함께 만든 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 * 『이곳만을 지키자』 /한겨레신문사
- * 사람과 산 홈페이지(www.mountaintenkorea.com)
- * 백두대간 첫마당 홈페이지(<http://www.angangi.com>)
- * 한겨레 신문 [칼럼 04.03.25 서러운 해파 700평창]
- * 국민일보 [04.04.05 백두대간 파괴현장 르포]
- * 홍천군청 홈페이지
- * 네이버 백과사전
- * 와이드 넷(www.widnet.co.kr)
- * 두산 세계 백과 사전 엔사이버(www.encyber.co.kr)
- * 에너지 대안 센터
- * 오대산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계획/ 국립공원 관리공단, 오대산 관리 사무소
- *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장기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공단
- * 한국의 아름다운 숲/ 산림청
- * 100 한국의 명산/ 산림청
- * 하이 아리랑(www.hiarirang.com)
- * 정선 아리랑 연구소(www.airirang.re.kr)
- * 『마음도 쉬어가는 고개를 찾아서』 /김하돈/ 실천문학사



대불사

나루가 나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불사 송이들에 가기자.

신주1

자료집 만든 이

송주현, 손승우, 조희은, 정용미, 서재철
남호근, 이윤미, 박경화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13-4 136-821
tel)02-747-8500 fax)02-766-4180